

성도의 빛 11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1월호 별책 부록 성도의 빛 어린이란

성도의 벗

1988년 11월호

“교회 잠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틴.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70권, 제24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11KO

PRINTED IN KOREA 11/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

2 “와서 나를 좇으라”……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방문 교육 메시지 :

7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9 회개의 의미……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14 돌아옴

19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은 압니다……돈 엘 서얼

23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엘레인 에스 맥케이

25 음악은 선교사……마조리 피 힝클리

26 예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심……진 언스트롬

29 오 높은 영광 보좌에……알베르디나 반덴 하젤 호게르만

31 지혜의 말씀……다이안 크라이프

33 가난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님……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36 질의응답……존 에프 오도날

청소년란 :

38 현실로 뛰어들……데이비드 시 루이스

42 그것은 특권이다……에이 린 스코스 비

4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리키 맥 워터

49 여러분은 바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아데스 지 캡 자매와의 대담

어린이란 :

2 친구가 친구에게……헬리오 다 로차 카마고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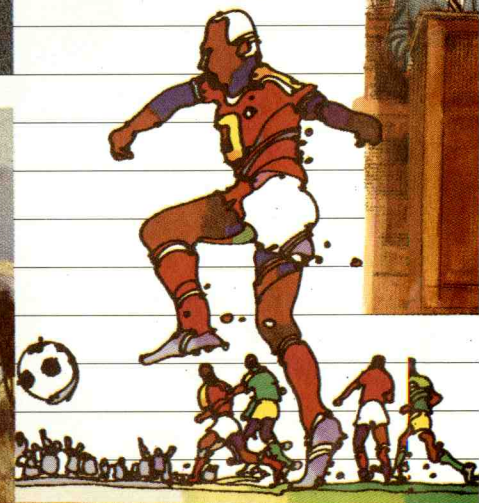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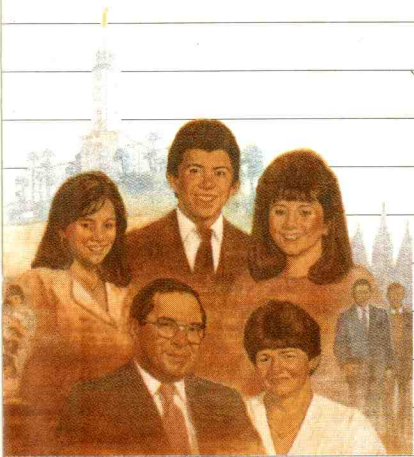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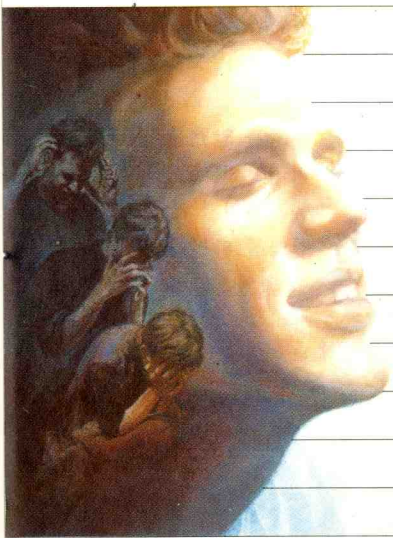
4 함께 나누는 시간 :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6 친구 사귀기 : 어린 시인의 말

8 심심풀이 : 수수께끼

표지 :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마태복음 12 : 9~13)
로버트 티 바렛 그림





“와서 나를 좇으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 입구에는 “바로 이곳이다”라는 유명한 말씀과 함께 브리감 영 대관장의 동상이

길을 가리키는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영 대관장은 대륙을 횡단하는 오랜 여행의 고난, 역경 그리고 고투로부터 등을 돌리고 서 있습니다. 힘차게 뻗쳐진 그의 팔은 값진 약속의 계곡을 가리킵니다.

1847년 브리감 영에 의해 조직되고 인도된 최초의 손수레 부대는 역사가들에 의해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영웅적인 사건의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척자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수백 명씩 고난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개중에는 포장마차와 사람수가 모자라 손수레를 밀고 끌며 산과 평원을 지나 2,000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서는 여섯 명에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여행을 나부, 커틀랜드, 파웨스트, 또는 뉴욕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또는 독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 안락한 생활과 안전한 장소를 버리고 떠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위대한 신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우리는 왜 집을 떠나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으로 간단다.”

하나님을 믿으

안전한 가정과
약속의 땅
시온과
사이에는



거대한 대양의 노한 파도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항해를 하는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단순하지만 확고한 신앙의 도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여행을 위해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옛 생활은 뒤에 있었으며 새로운 삶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잔뜩 실은 목재 범선들 중에는 나의 증조부가 아직 어린 식구들과 소유물 몇 가지를 갖고 항해를 했습니다. 파도는 높고 항로는 길고 객실은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늘 약했던 어린 소녀 메리는 매일의 항해로 점점 약해지는 것을 어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실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낡은 배의 지루한 여행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날이 가도록 격정에 싸인 부모는 육지를 고대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메리는 항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심하게 앓더니 고난의 장막 저편으로 편안히 떠났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갑판 위에 둘러선 가운데 선장은 장례 의식을 집행했으며 고귀한 작은 육신은 눈물로 얼룩진 천에 고이 싸여 노한 바다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의지가 강한 그녀의 아버지는 감정에 목매인 음성으로 슬픔에 잠긴 메리의 모친에게 다음 말을 되풀이하며 위로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 : 21) 여보, 우리는 메리를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시온의 영광

그러한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 묘비를 만든 무덤들이 일리노이의 나무에서부터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개척자들이 지불한 대가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친 소는 천천히 걸었으며 포장마차의 바퀴는 삐걱거렸고 용감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앙이 강하고 굳센 우리의 선조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을 갖고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3 : 21)

그들은 자주 이렇게 노래불렀습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찬송가, 8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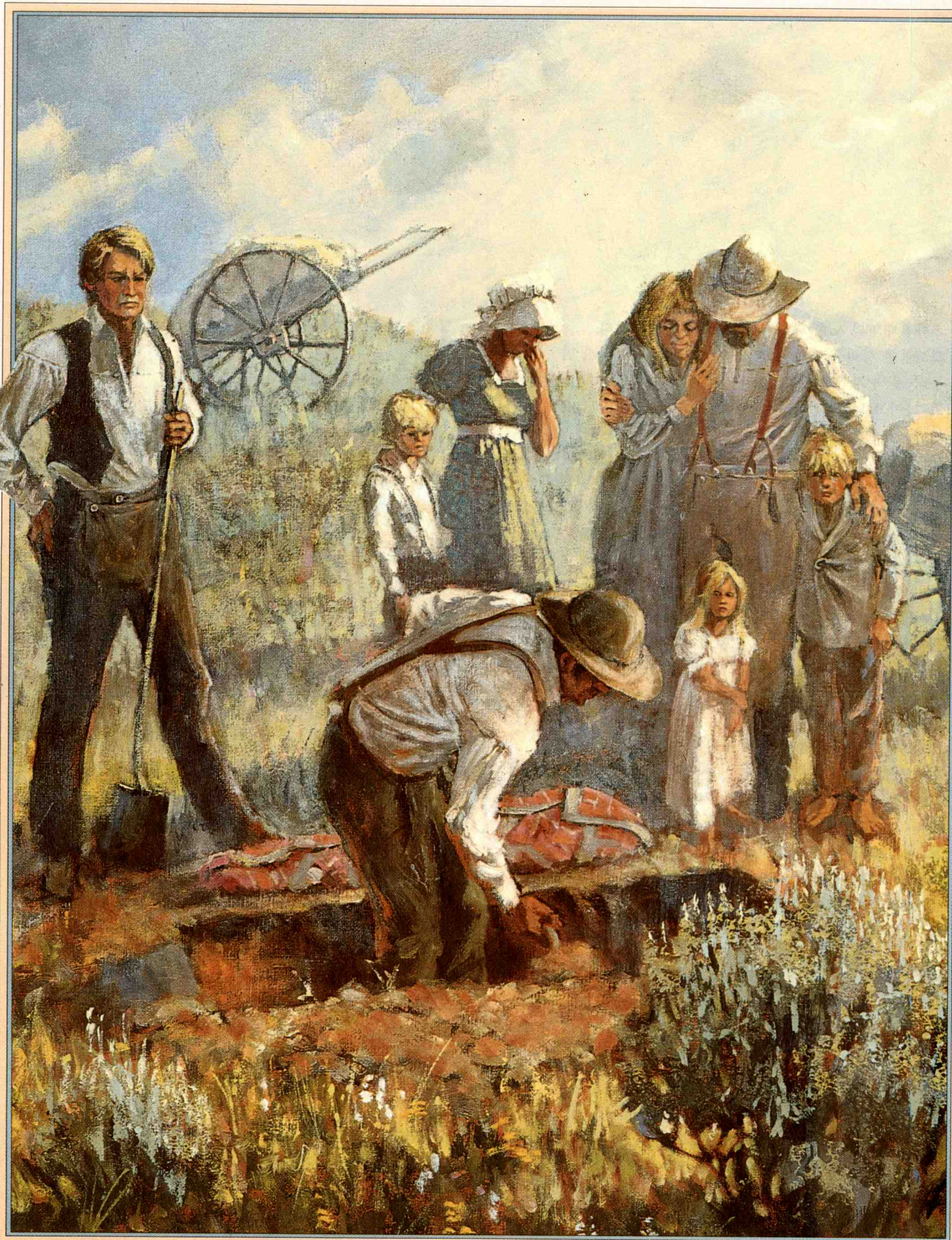
이 개척자들은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이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니”(교성 136 : 31)

길고 고통스런 시련이 끝나 가면서 기쁜 마음이 각자의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지친 다리와 기진한 육신은 어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개척자들이 쓴 오래된 일지의 낡은 페이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 땅이 그의 백성들이 거처할 장소가 되도록 그분께 헌납했다.”

다른 개척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언덕가에 토굴을 파고 만든 방 한 칸짜리의 우리 집에는 창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문짝도 없었다. 그대신 어머니는 입구에 낡은 담요 조각을 걸쳐 놓았다. 그것이 우리가 첫번째 겨울을 넘기기 위해 만든 문이었다. 어머니는 어떠한 여왕도 궁전에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완성된 토굴에 들어갈 때 느낀 거처와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에 대한 행복이나 금지보다 더 큰 것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련, 역경, 고난, 비탄은 굳센 용기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불변의 신앙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예언자로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의 말씀이 그들의 신조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서약은 이와 같아야 하리니 곧, 우리는 주의 모든 법령을 이행하기로 서약하여야 하느니라.”(교성 136 : 4)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련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옛 사람의 개척 정신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과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눈물로 얼룩진 이름없는 무덤의 행렬을 뒤에 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잊고 또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제 즉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걸어야 할 돌밭길이나 넘어야 할 험한 산이나 길잡이 표시를 해야 할 토굴이나 건너야 할 강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개척 정신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도덕의 표준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소년원에 갇혀 있거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절은 급속히 아래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희생해 가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하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평화를 상실합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개척자들의 특징이었던 용기와 초지일관 목적을 향해 나가는 정신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실제적인 면에서 오늘날의 개척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 개척자란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 주며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 세상은 오늘날 얼마나 개척자를 필요로 합니까?

희랍과 로마는 그당시 놀랍게 번영했습니다만 그들의 승리는 소위 타인의 권리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유를 원했을 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안락한 생활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안정과 안전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 즉 자유, 편안함 및 안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똑같은 양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삶을 인도해 주고 지도해 줄 사람을 찾을 때 방황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 “누구를 따를까?” “누구를 섬길까?”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거짓 지도자와 예언자를 보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굳게 섬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에 유의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그의 음성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서기 위해 귀기울여야 할 음성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영혼의 욕망을 관능과 악덕의 쾌락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일에서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결코 덕을 낳지 못합니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비굴함은 결코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의심은 결코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다툼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순결, 정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잘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모범이 되어 온 의로운 사람들의 생활에서 힘을 얻고 굳세게 서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리석은 대중은 구름 한점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결국 비가 내릴 때까지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미대륙에서 사람들은 구세주의 실제와 그의 사명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서운 불이 제이라헤를라를 태우고 땅이 흔들리고, 모로나이아가 흙으로 뒤덮이고 모로나이성이 물 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논쟁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조소와 조롱, 신성모독과 인간들의 죄는 칠흙같은 어두움과 무서운 적막으로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가가 큰 교훈을 되풀이해서 배워야만 합니까?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비탄과 고통, 고뇌와 함께 그 재난을 반복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주님께 순종할 만한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강의 왕,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신 분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성한 계획은 우리를 죄와 자만과 실수의 바빌론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모범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줍니다. 유혹에 당면했을 때 그는 피하셨습니다. 세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그는 거절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내놓으셨습니다.

날 따르라 주 말씀하니
주 발자취 따라가세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와 하나되리...
날 따르라 주님 말씀
영원토록 순종하면
보좌 왕국 권능 축복
힘 영광 다 내 것일세
(찬송가, 77장)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 주는 개척자가 되도록 결심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초기 개척자들은 고난과 역경과 비탄을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불변의 용기로 극복했습니다.
2.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개척 정신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3.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희생하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비탄과 고통, 고뇌와 함께 그 재난을 반복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말일성도로서 다른 사람이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의로운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감독이나 정원회 지도자의 메시지가 있는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목적 : 인생에서의 역경을 통해 사랑, 겸손, 용기, 신앙을 키우는 방법을 배움

마리 앤더슨(가명)은 그녀의 어린 딸이 성인 친구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은 어린 딸이 직접 증언을 해야 했던 오랜 동안의 재판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마리의 가족은 낙심했다. 사적인 생활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과 교회에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때로 자신이 몹시 혼란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이 마리의 가족을 돕도록 축복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마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동안 마리의 새로운 아기가 밤이면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의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후에 그녀는 왜 아기가 그토록 잠을 못 잤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아기가 밤이면 깨어서 내가 밤마다 근심과 고통으로 뒤척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영의 속삭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내가 밤이면 깨어 있어야 할 목적을 갖게 했고 가족의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당면하는 시련이 반드시 마리의 경우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과 실의, 낙담, 억압 등으로 억누르기 위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이기도록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시련은 우리에게 겸손, 신앙, 용기, 동정심을 가르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움을 준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비의 사랑을 갖게 된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고린도전서 13 : 17; 모로나이서 7 : 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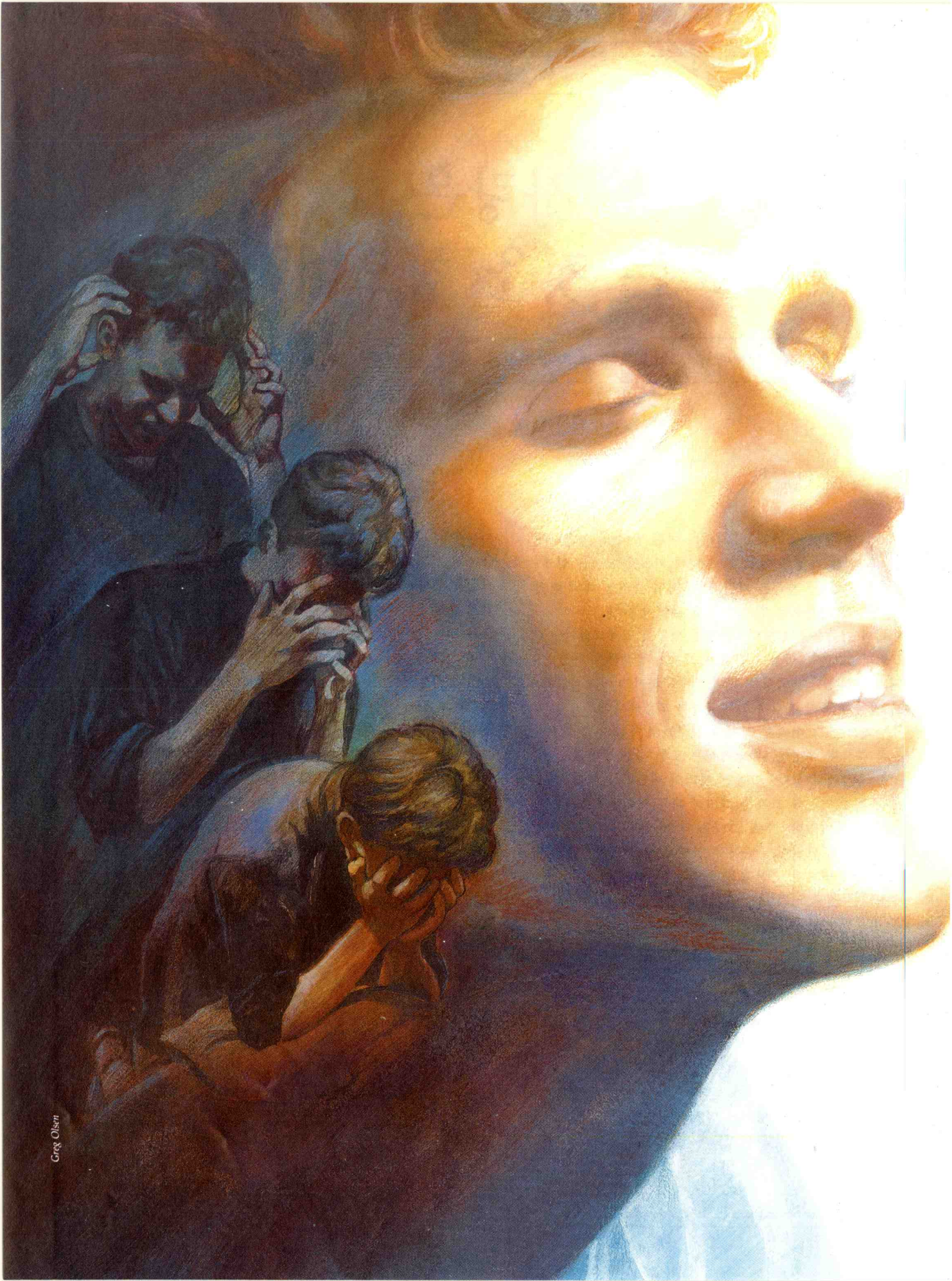
시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는 벤슨 대관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 “주님과 같이 되겠다는 목표로 온 마음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비판적인 온갖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 절망, 고난 또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신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엘마의 말씀에서 인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네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주께서 시련과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너를 구출해 내시며 마지막 날에 너를 높이 들어올리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엘마서 38 : 5)*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돕는지 토론한다.
2.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가 어떤 특별한 시련의 결과로 성장하게 된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가정의 밤 자료집 138, 143, 173-174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참조)



Greg Olsen

디어도어 엠 버튼 장르

칠십인 제일 정원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 원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거듭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회개의 의미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에 보면 초기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부름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자주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 : 6 ; 16 : 6 참조)

이 계시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그것을 우리 자신이 실천해 나가는 일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감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나는 회개한 범법자를 다시 교회에 받아들이고 신권과 전 축복을 회복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대관장단을 위해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감독들은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통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통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씁니다. “그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벌도 회개는 아닙니다. 형벌은 불순종에 뒤따르는 것이며 회개에 선행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쓸 것입니다. “제 아내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고백은 회개가 시작될 때 범법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남편은 후회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슬픔은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고통, 형벌, 고백, 후회 및 슬픔은 회개할 때 수반되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것들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구약전서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전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며 구약에서 회개의 개념을 담고 사용된 단어는 슈브(Shub)입니다. 슈브란 “...으로 돌아섬”이라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구약전서의 메시지는 죄로부터 돌아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며 불행과, 슬픔, 후회, 절망으로부터 떠나 아버지의 가족으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 가운데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슈브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구약전서는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돌아서 고귀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조종하는 생각까지도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슈브의 개념은 회랍어로 쓰여진 신약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랍 저자들은 회개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메타노에오(Metaneo)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타노에오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메타노에오란 회랍어가 히브리어의 슈브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 모두 악으로부터 하나님과 의로움으로 철저히 돌아서거나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전서를 회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혼련이

회개의 의미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도록 도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번역을 할 때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는 불행이 저질러 졌습니다. 회개어인 *메타노에*는 라틴어 *포에니테레(Poenitere)*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처벌하다, 속죄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와 희랍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는 라틴어에서 마음이 상하고 벌을 주며 채찍질하고 자르고 절단하고 손상시키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고통을 가하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끝없이 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함

회개의 의미는 사람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도록 도우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회개란 단어는 우리의 종교적인 용어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단어로써보다는 고맙고 소중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3장에서 회개의 의미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코 살고 죽지 않으리라”(15절)

회개의 이 세 단계를 분석해 봅시다. 첫째는 “전당물을 도로 준다”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전당물을 도로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당물을 도로 주거나 새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과와의 성약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와 변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한 바를 완전히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그렇게 화만 나지

않았어도”, “부도님께서 더 엄하셨더라면”, “선생님들이 좀더 잘 가르쳐 주셨더라면”, “감독님께서 좀더 이해해 주셨더라면”, “그렇게 어둡지만 않았더라면”하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은 변명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결과를 호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맡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모든 합리화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완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던 구세주의 모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이 고통당하고 핏방울을 흘리고 무서운 시련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44 참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그는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유로이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기도로 간구하고 압박으로 고통당할 때 그는 그 잔이 물러가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그가 “뜻이...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간구에는 응답이 없었으며 그의 영혼은 계속 고뇌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세 번 모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36~44 참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회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아름다운 말씀이며,
홀륭한 피난처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도록 명함받은 일을 충실히 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그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에 순종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심

회개를 하려는 노력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회개를 가능케 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죄에 대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다만 축복을 거두실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거듭 거듭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의해 벌을 받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뜨거운 난로에 데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다만 그 법칙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잊고서 혹은 고의로 난로를 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뭘 것입니다. 나는 울면서 덴 것을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닙니다. 난로는 더욱 더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회개의 두번째 단계, 즉 보상 또는 “억탈물을 돌려 주며”(에스겔 33:15)에서 분명하게 다루고자하는 중요한 자비의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훔쳤을 경우 그것이 양이 많더라도 되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도적질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덕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잃어버린 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있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보상을 시도하는 것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셨으며 그렇게 하여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신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생활 방식에서의 변화를 위시하여 여러분이 행하는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자비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심각하면 할수록 회개하려는 노력도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구세주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습니다. 열쇠는 주님으로 하여금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고 완전히 치료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시간은 걸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베었다면 상처는 차차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동안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렵다고 긁는다면 상처를 다시 건드리 치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긁는다면 손가락에 있는 균이 상처에 옮겨질 것입니다. 상처에 독이 퍼져 그 부분을 잃게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상처를 낮게 해야 합니다. 상처가 심각하다면 의사에게 찾아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상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후회로 상처를 “긁지” 말고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해야 하는 범법이라면 여러분의 감독님에게 찾아가 영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상처를 소독하고 껌 때 아픈기는 하겠지만 상처는 그러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치료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의로운 생각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행복하고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의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적극적이 되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죄와 악으로 돌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와 죄로부터 돌아서 생각과 행동 모든 면에서 그것들을 우리 뒤에 놓는다면 우리는 훌륭하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대업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의 세번째 단계, 즉 죄를 잊거나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에스겔 33 : 15)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에스겔 33 : 16)

오늘날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느니라.”(교성 58 : 42~43)

심각한 죄에 대한 회개에 선행하는 고백은 그러한 고백을

들을 권능이 있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해야 합니다. 용서는 죄로 인해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죄를 짓지 않은 한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됩니다. 심각한 죄에 대한 회개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가 크던 작던 회개의 마지막 절차는 죄를 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시는 친절하고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에게 우리는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시며 우리가 유혹에 당면한다는 사실을 동정하십니다.

물론경에서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위대한 자비와 희생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 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아서 2 : 17)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은 그의 자녀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분의 축복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우리가 회개하여 불순종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슬픔, 고난과 절망의 속박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회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요, 훌륭한 피난처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옴

요청에 따라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내가 부친에게 그의 생일에 드려야 했던 유일한 것은 내가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 마 전 나는 신권과 그 의식에 관한 공과를 준비하면서 전에 그와 비슷한 공과를 여러 번 들었던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원회 회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공과에 덧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권을 잃었을 때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때의 느낌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값진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몸소 시도해야 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지불한 엄청난 대가를 결코 지불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나는 중한 죄를 범했으며 그 죄는 다음날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분명히 파문을 받게 될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대가도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려 했으며 나는 이 사랑이 결국은 나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후에 나는 신권 지도자를 찾아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지도자는 즉시 교회로부터 나를 파문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했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파문을 당했다는 사실과 고통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 그 소식을 가족에게 전할 때까지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친에게 그의 생일에 드려야 했던 유일한 것은 그가 평생토록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하게 봉사해 온 교회로부터 내가 파문당했다는 것임을 전할 적절한 말을 찾기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시간은 내게 정지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악몽같았습니다. 아무도 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도와 주거나 이해해줄 아무런 조직이나 그룹도 없었습니다. 나의 생애는 모든 방향과 의미를 잃었습니다. 나는 무관심해졌으며 노도 닿지 않는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세워 놓은 모든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거의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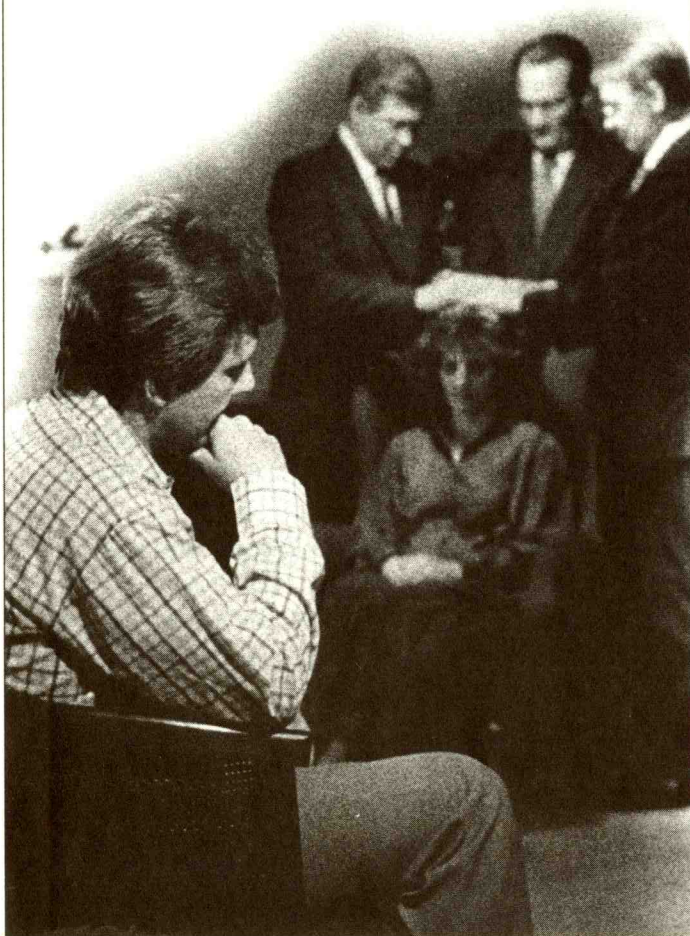
집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뒤 나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여자를 만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구애의 과정이 옳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신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관계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한 회개의 절차로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런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자신의 입장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 번 나를 모르는 친구들이 내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공과에 관한 질문에 답을 물었지만 나는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밖에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고통스러웠지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범과 파문으로 인해 나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거룩한 침례 성약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약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죄의 산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래 전 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나는 신권을 의롭게 행사할 때 신성한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악영향을 방어하기 위해 이 거룩한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 간 나는 나와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도록 여러번 부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특별한 의식에서 말도 할 수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로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스티브 번더슨

나의 아내는 얼마후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이가 축복을 받을 때 그 특별한 의식에서 말도 할 수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로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는 또한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모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을 주신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나는 교회와 복음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후 몇 년 동안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할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속으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교회에 다시 속하고 싶은 소망은 가버렸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죄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매번 나는 더욱 큰 소리로 주님과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난 교회가 필요없습니다.” 소리를 지를수록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가족에게 끼친 불명예와 고통을 찬양했으며 이로써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마음속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토록 힘겹게 싸운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죄의식을 더 느낄수록 나는 죄되는 행동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세상 사람에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결국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지쳐 버린 아내는 내 곁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 2주간은 내 생애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가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의미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결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죄짓게 하는 동료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에 다시 가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마음은 점차 오게 되었습니다.

첫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아이와 함께 더 이상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택을 하여 그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내 영혼은 번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었지만 또한 그 선택이 숨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나는 단지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만 돌아갈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간증을 되찾는 데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기도와 연구와 고투 끝에 나는 마음속에 조그만 불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전에 느낀 영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 느낌은 서서히 커갔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비록 파문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 모든 것을 쉽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얼마간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노력했습니다. 축복이 가까이 있을 때 나의 인생은 다시 멀리 떨어져 다시 한번 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았으며 그의 약속에 진실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노력한 끝에 나는 다시 침례탕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년 반 동안 나는 신권을 받기 위해 열심히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되돌아 가려는 나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회원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우정을 원했습니다. 나의 고투는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끝났습니다. 큰 기대와 두려움, 기쁨과 더불어 나는 가족과 함께 그 기억할 만한 모임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주님의 사도를 만나러 가는 일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임신중인 아이를 축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저하고도 사랑에 가득찬 접견이 끝난 뒤 이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내에게 들어오라고 한 뒤 그의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전에 지녔던 신권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완전히 회복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울었습니다.

사도는 아내를 돌아보고 축복을 받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나를 보면서 신권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몸소 사용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내를 축복하라고 했으며 함께 걸어서 잇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수분 동안 나는 신권에 관해 여러 권의 책을 읽어 배울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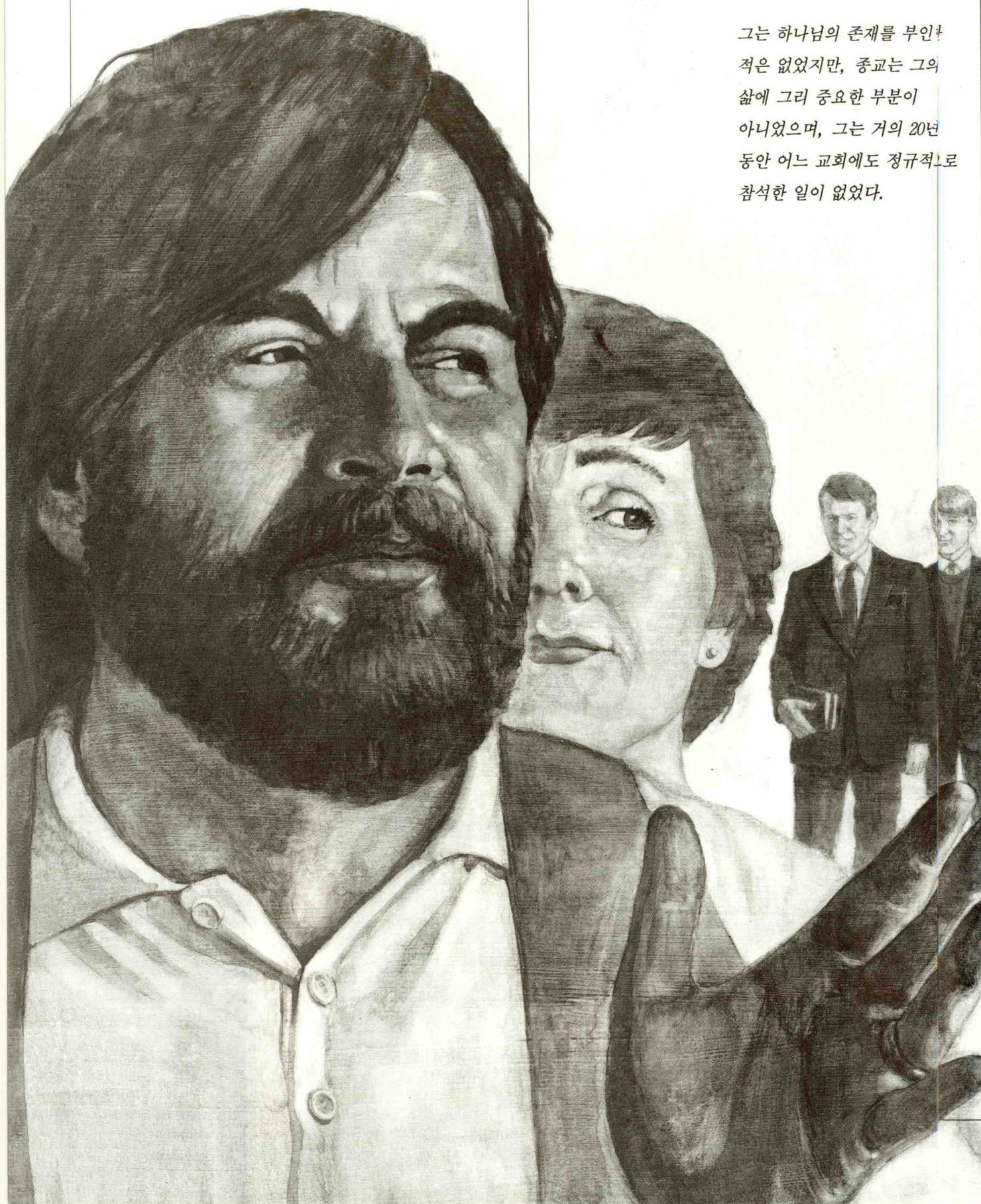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장 심각했던 몇 가지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만 나는 이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신께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번째 딸 아이를 축복할 수 있었으며 다른 많은 방법으로 나의 신권을 행사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현재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즉 자녀에게 흰 옷을 입혀 성전의 거룩한 방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이 축복을 오랫동안 거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해 내가 치른 대가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현명했겠습니까. *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
적은 없었지만, 종교는 그의
삶에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으며, 그는 거의 20년
동안 어느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한 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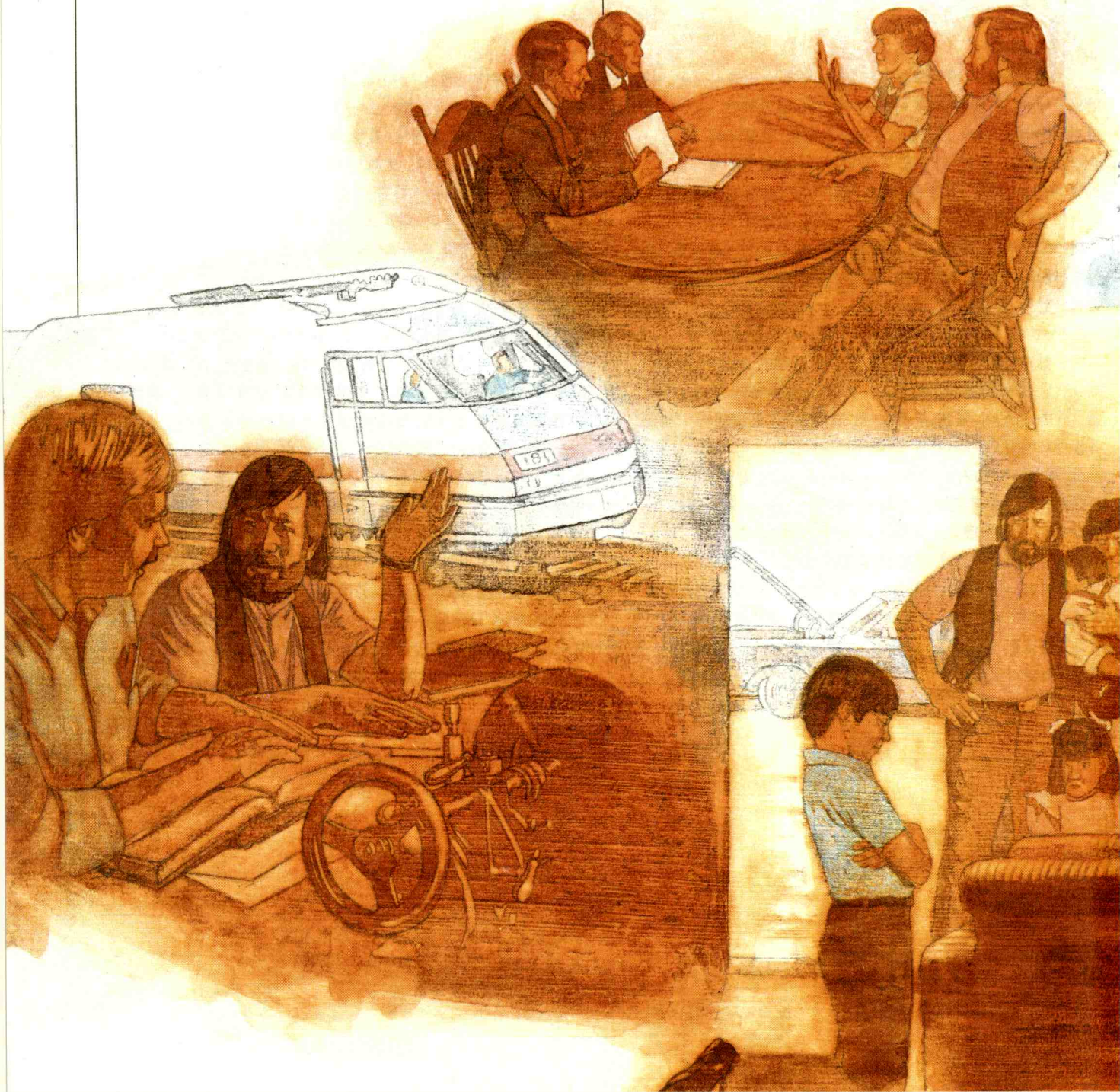


시히프레도는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나아지도록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한 가지 과정을 끝내면 또 다른 것을 시작했어요”라고 아나가 말한다. 그는 인기가 좋은 자동차 숙련공이 되었다.

시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인하거나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 종교는 그의 삶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무신론적 또는 불가지론적

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한번은 시그가 한 불가지론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교회 가입한다면 어느 교회에 가입하겠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몰론이 되겠요”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는 말일성도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

사실 시그 베라노에게 처음으로 말일성도 선교사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권유한 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말일성도의 훌륭한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돈 엘 서얼

시

히프레도 베라노는 캘리포니아에서 선교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별로 좋은 접촉이라고 여기진 않았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르고 1970년대 초의 반항아들 스타일이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종일 일했으며,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공부를 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

대부분의 직장 동료들은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였으며, 시히프레도 자신도 거의 20년 동안 어느 교회에도 정규적으로 참석한 일이 없었다.

선교사들이 처음 그의 아내 아나 루시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남편과 이야기하려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여러 번 간단한 방문이 있던 후에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종소, 나를 가르치시오. 그 일을 끝내 버립시다.”

시그와 아나 베라노 가족이 교회에 온 것은 몇몇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베라노 가족의 자녀들의 신앙에 큰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한 간증을 갖도록 해준 것은 그들 자신의 근면한 순종이었다.

시그 베라노는 1963년에 그의 고국인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가 성장하면서 사랑해 온 아나는 시그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잠시 떨어져 있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단지 3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는 거의 못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리스에서 그가 구한 첫 직업은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을 받고 모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보수가 더 나은 일을 찾기 위해 신문을 읽었다. 그는 “기계 기술자”를 위한 훈련 과정을 보게 되었다. 보수도 좋아 보였고 남미에서는 기관사인 마키니스타는 정규 직장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그는 등록을 했다.

시그는 훈련 과정을 잘 받았다. 그러나 “큰 기계”를 만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참으라는 말을 들었다. 훈련이 끝나야 기회가 온다는 것이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도 아직도 그는 기차 엔진을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동료에게 앞으로 일에서 얼마나 더 여행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여행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으!”하고 동료가 대답했다. 시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토론을 한 후에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기계 기술자로서의 시그의 새로운 직업은 자신과 아나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편지로 계속 교재하고 난 뒤 1964년 대리인에 의해 결혼을 했다. 그녀는 1965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1966년에는 줄리애를, 그리고 1972년에 마벨을 낳았다.

모범이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에게 진리와 같았다. 지혜의 말씀은 젊은 기술자로 하여금 담배와 술을 끊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는 데 큰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오랜 동안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곧 그는 선교사 토론을 듣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나 베라노 집안의 자녀들은 당시 일주일에 한번 어느

오후에 갖고 있던 초등학교를 좋아했다. 시그나 아나는 아이들을 교회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하루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교회에 갈 수 없을 것 같구나”하고 시그가 말했다.

집 뒤에서 여섯 살 짜리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기도해요”하고 그가 간청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다시 차 있는 곳으로 갔다.



놀랍게도 차는 즉시 움직였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라노 가족은 잠시 교회에 참석했으나 몇 주 후에는 그만 두었다. 이 기간 동안 그들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우연한 사건”들이 있었다. 시그의 장모가 콜롬비아에서 찾아와 그녀의 집 근처 교회에 있는 머리를 짧게 깎은 미국 선교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상선을 운행하는 콜롬비아의 옛 친구가 그를 찾아왔다. 저녁을 먹을 때 그는 음식을 축복해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시그 베라노는 기도에서 그 친구가 말일성도임을 알 수 있었다. 오랜 항해 동안 경전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 개종자 친구는 베라노 가족이 교회의 구도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의 간증을 전했다.

시그 베라노는 언젠가 선교사들에게 교사가 아니라 친구로 방문하는 것은 좋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한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할 무렵 동반자와 함께 베라노 가족을 방문하여 친구들이 마련한 조그만 환송 모임에 나와 부모를 만나 보라고 초청했다. 베라노 가족은 그들이 만난 사랑에 넘치는 말일성도들로부터 너무나 훌륭한 인상을 받아 다시 선교사와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상들의 교회의 전통에 충실한 아나 베라노는 남편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 자신의 신앙을 고집했다. 그녀는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침례받은 후 그들을 거기로 데려가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시그가 침례받기 전 주 내내 아나는 구세주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침례받는 꿈을 계속 꾸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해야 할 옳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시히프레도와 아나는 1974년 1월에 침례받았다. 아들 에디슨은 그해 늦게 여덟번째 생일이 지나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베라노 가족이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끝난 것도 아니었으며, 그들과 우정 증진을 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베라노 형제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인 조지 베이커가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도와 주었다고 회상한다. 아침 일곱 시 신권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루 세 번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베라노 형제는 그만 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밤 열두 시부터 아침 여섯 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첫번째 모임은 참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었던 베이커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베라노 가족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어 교회에 계속 나오도록 했다.

베라노 가족의 영성은 그들이 충실하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복음 원리에 순종할 때 성장했다.

그는 1978년 그의 스테이크에서 조직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으며 5년 후에 와드가 되었을 때 감독이 되었다.

지부의 조직은 아나 베라노에게 큰 축복이었다. 영어를 알 못하는 그녀는 영어를 사용하는 와드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스페인어 사용 지부에서는 부름을 받아들여 남편처럼 봉사할 수 있었다.

베라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참된 간증은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 왔습니다. 꾸준한 봉사는 개인의 간증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사용 와드가 분리되었을 때 시그는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현재 로스엔젤리스 캘리포니아 노스 홀리우드 스테이크에 있는 세 개의 스페인어 사용 와드를 위한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아나는 스테이크 영어 성명 초출 프로그램에 관한 일을 하며 봉사하고 있다.

시그 베라노가 수료한 직업 훈련 가운데는 부동산 판매에 관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직업이 되었으며, 그의 간증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그의 세일즈 활동은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다. 베라노 형제가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종교를 갖고 있음을 안 부동산 회사 주인은 그를 일주일 만에 해고시켰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요일은 텅 비고 말 것입니다.”하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부동산 회사 경영주는 물론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회봉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일즈 일이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는 조그만 회사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는 해고되었다. 그는 더 큰 회사에서 일거리를 찾아 1979년에 파트 타임으로 일한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는 계속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 지부장 감독으로 그는 토요일의 일부까지 교회에서 보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는 회사에서 5명의 최고 세일즈맨 자리를 지켜 왔다.

교회 모임에서 베라노 형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얻었으며,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예언자를 주셨음을 겸손하게 간증한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시험삼아 믿는 사람들은 순종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베라노 형제처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내가 침례 받았을 때 나는 믿었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교회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나클에 갔었습니다. 나는 건물의 크기에도 놀랐지만 그곳에 모인 총관리 역원과 함께 하는 영감에 더욱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여러 총관리 역원이 몬타나에 있는 우리의 작은 지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를 통해 대회 연설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총관리 역원의 방문을 특별한 축복으로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앙과 권세를 갖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엘레인 에스 맥케이

그러던 중 몇년 전 어느 4월에 나는 총관리 역원이 지니는 힘의 한 가지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의 여섯 자녀와 함께 참석했는데 그 중 한 명은

나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다음 연사가 벤슨 장로라는 안내를 할 때 더욱 흥미로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만나 보지 못한 벤슨 장로가 연단으로 걸어오는 것을 주의깊게 지켜 보았습니다. 그는 1미터 80센티미터가 넘는 거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합중국의 농업부 장관으로,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전세계의 청중에게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벤슨 장로의 어린 딸 하나가 나에게 기대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다소 놀란 나는 이렇게

나는 그 속삭임이 줄을 따라 벤슨 자매가 앉아 있는 곳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옆으로 전달되고 있고 나도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데 ‘벤슨 장로를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할까? ‘당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라고 할까? 상황이 급박한 것을 알고 나는 다음 사람에게로 머리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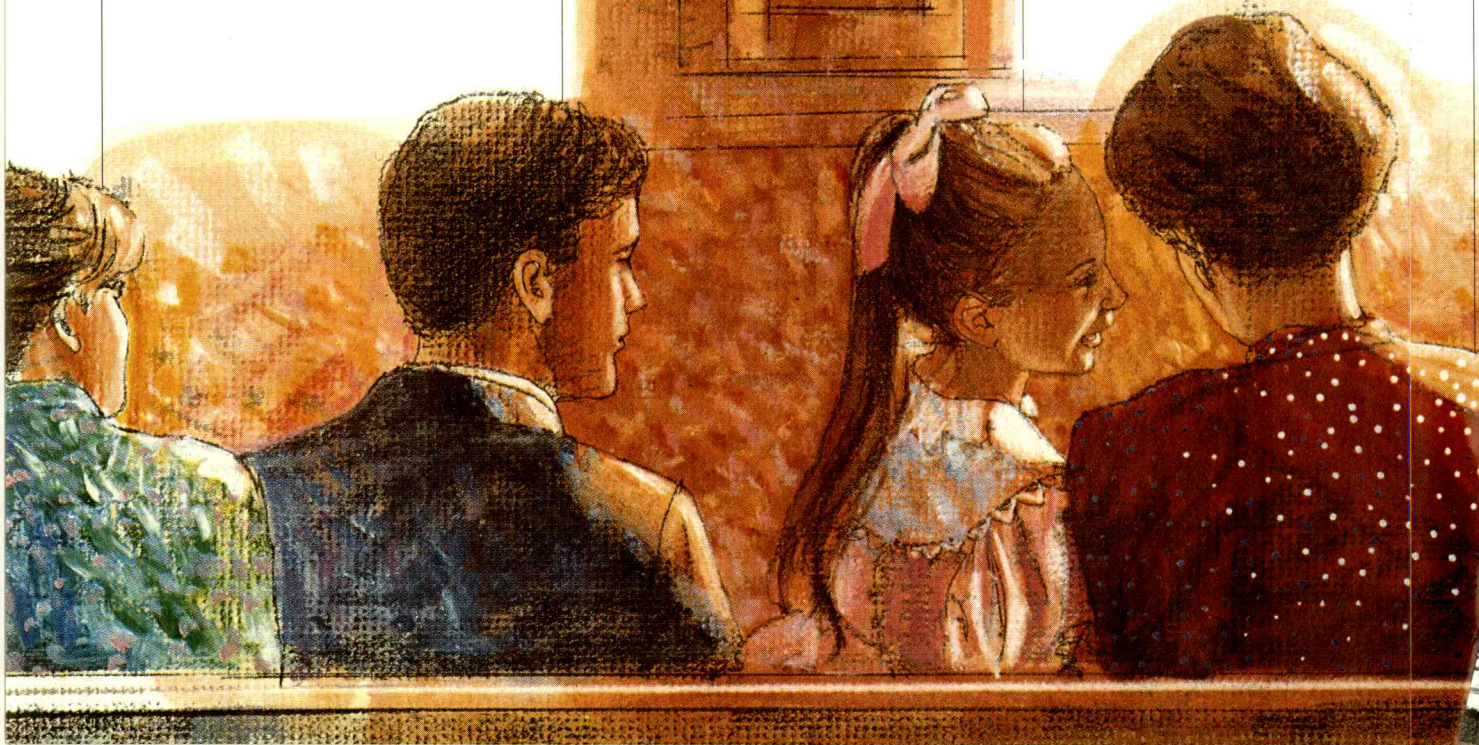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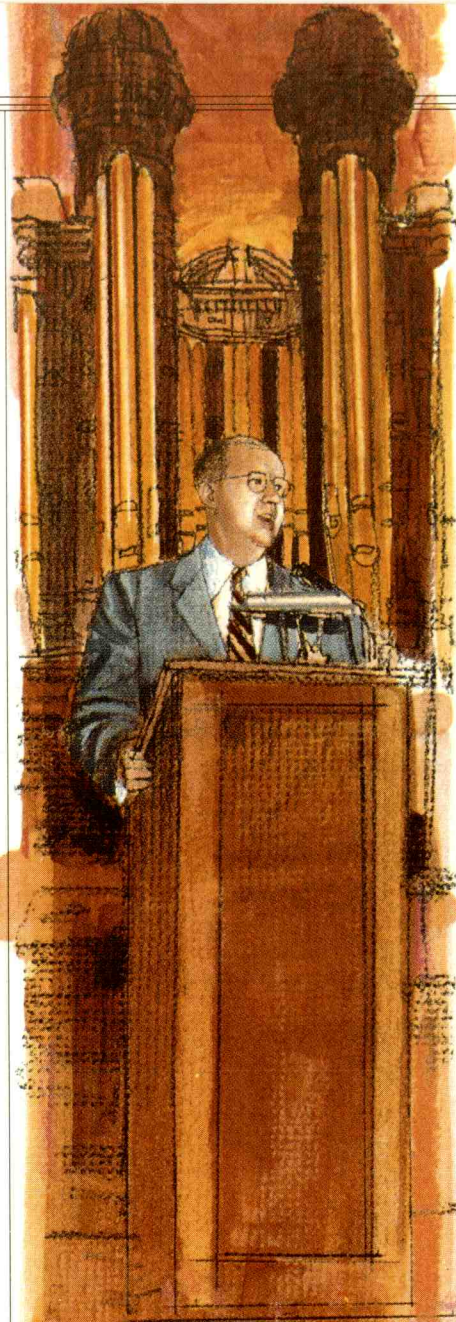
나는 그 속삭임이 줄을 따라 벤슨 자매가 앉아 있는 곳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벤슨 자매의 머리는 이미 숙여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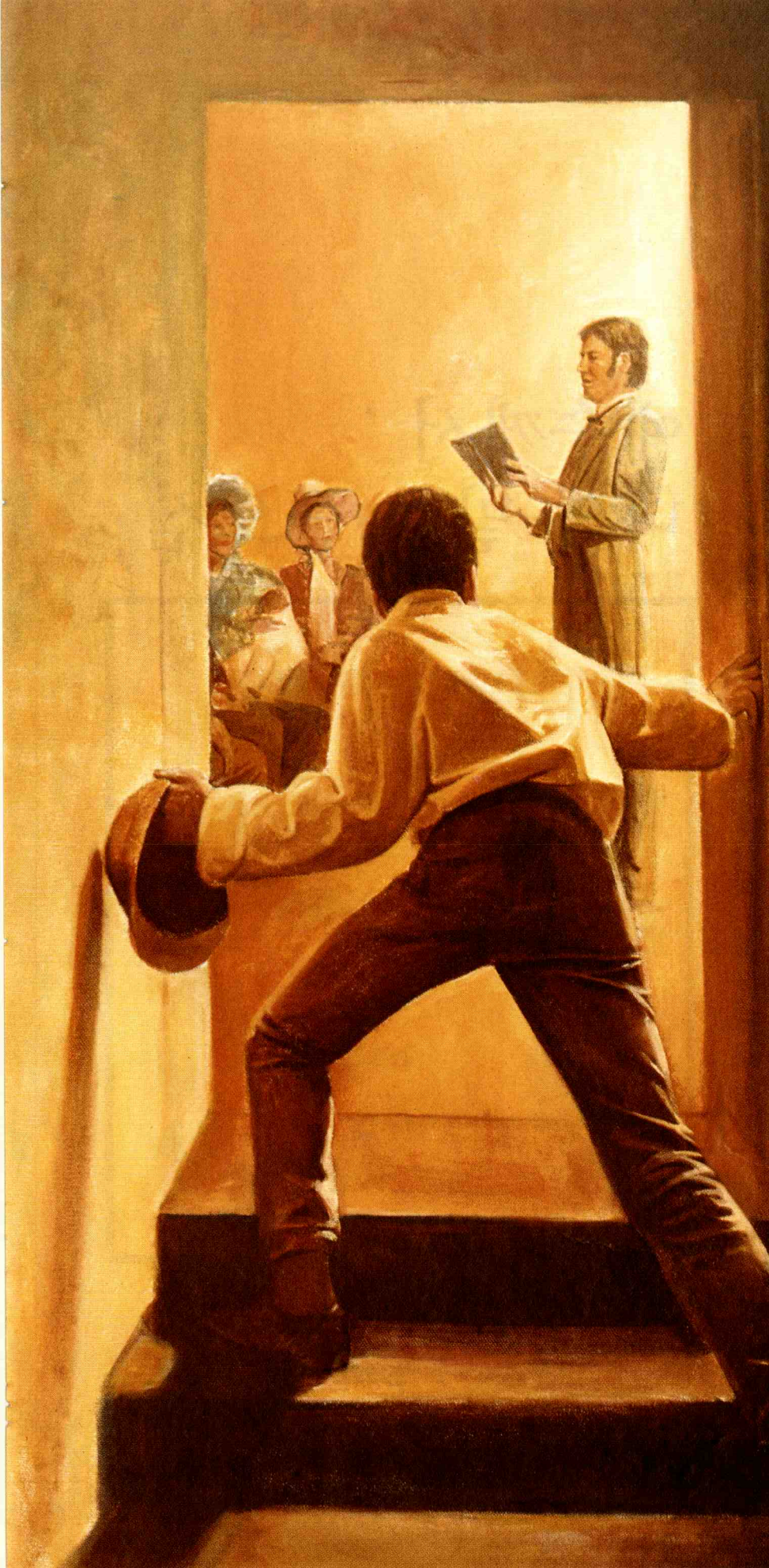
그날 이후로 여러 번 나는 집안의 가장인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방부장이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사회 단체에서 집행 역원이 되었을 때, 사업이 번성할 때 또는 월급이 깎였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밤에서 권고를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거나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찬식에서 말씀을

하거나 어머니가 다시 회복되도록 어머니에게 축복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침례를 베풀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며 가장의 축복을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지치거나 낙담하여 돌아올 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연차 대회가 되고 가지만 매번 벤슨 대관장이 말씀을 할 때면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장하여 여러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의 자녀들은 이 순간에는 한 마음으로 그의 부친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

수년 전 태버나클에서 속삭임으로 전해지던 간단한 메시지는 가족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선가 아들이나 딸이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라고 속삭인다면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는 얼마나 큰 힘과 신앙을 얻겠습니까. *





음악은 선교사

마조리 피 힝클리

1841년 가을 어느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에, 나의
증조부이신 윌리엄

민셀 이만스는 당시 열 여섯 살로
영국에서, 리버풀 거리를 따라 걸으며,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는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전에 들어
본 어떤 것보다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홀려 길을
따라 내려가다 흔들 흔들하는 계단을
올라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 몇 사람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되었고,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존 테일러가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으므로 윌리엄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윌리엄은 빠짐없이 참석하던 합창단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 데이비드에게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말해 보라는 채근을 받은 윌리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 보아야 할 곳에 가 보았던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 들은 훌륭한 진리를 우리 모두 들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래지 않아, 윌리엄과 데이비드는 복음으로 개종하고, 다른 가족들도 개종하도록 도와 주었다. 세 형제와 그들의 부모는 1848년과 1850년 사이에 유타로 이민해 갔다. 윌리엄의 어머니가 아이오와주의 케인즈빌에서 콜레라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남편은 몹시 마음이 상하여 유타로 계속해 가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져 영국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아들들은 초기 개척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으나, 끝까지 복음에 참되고 충실하게 남았습니다. 윌리엄은 열 두 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의 후손들에게 큰 유산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나의 가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고 그에 따른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은 바로 찬송가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계보를 열심히 탐구하는 마조리 피 힝클리 자매는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피 힝클리 부대관장의 부인이다.

예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심

진 언스트롬



아

홉 살 된 장애 소녀의 밝고 푸른 눈을 통해 나에게 영이 보여진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히더는 즐겁게 킬킬대며 단호한 정신력을 가진 영리한 소녀지만 심한 신체적 장애로 행동이 몹시 불편하다. 가장 단순한 활동도 그녀에게는 매우 힘이 든다.

히더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며 눈을 깜빡이면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 가지 의문과 응시와 눈을 깜빡거림과 킬킬대는 웃음과 얼굴 표정을 통해 히더는 열성적인 정신력을 표현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수년 동안 나는 그녀의 임상 의사며 선생으로서 히더에게는 하늘과 지상의 장막이 무척 얇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다. 이것은 자주 장애 어린이에게서 사실로 나타난다. 히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영적인 것에 대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느 월요일 아침에 나는 히더와 함께 지난 주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히더는 초등학교에 참석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띄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불렀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냐고 물었다. 그녀는 즉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문제에 부딪혔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가 초등학교에서 들은적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노래책에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노래를 모두 불러 보았다. 그 노래를

알아낼 수가 없어 나는 당황했고 히더는 실망했다.

히더는 내가 포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몇 가지 이유로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나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었다. 결국 나는 다음날 초등학교 노래를 학교에 가져와서 그녀와 함께 그 노래를 찾아보기로 했다.

화요일 아침에 히더는 노래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내게 알려 왔지만 노래책을 다 살펴봤으나 그 노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노래를 좋아했지만 그 가운데 그 노래는 없었다. 실망하여 나는 히더에게 우리가 부르고 싶어하는 그 노래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찾아 달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래도 못 찾으면 우리는 그 노래를 못 찾을 채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히더는 더욱 더 그 노래를 찾고 싶어했다. 그녀의 휠체어에는 교회 찬송가가 있었다. 나도 그 옆에 앉아 한 장 한 장 찬송가를 넘겨 갔다. 나는 노래의 첫 줄을 불렀지만 그때마다 히더의 눈은 아니라는 뜻으로 깜빡거렸다. 책을 반쯤 넘겼을 때 나는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누가 편으로 찌르길라도 한듯 히더는 움찔하며 웃었다. 그녀의 밝은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3일간 찾아온 노력이 성취된 기쁨을 느끼며 함께 웃었다. “자, 이제 마침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구나.”하고 내가 말했다. 내가 1절을 부를 때 그녀는 웃고 있었다. 후렴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한숨 소리같은 소리를 내며 함께 부르려고 애썼다. 후렴을 다 불렀을 때 그녀는 나를 뻗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난 그 부분이 좋아요.” 나는 그 노래를 찾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머지 절을 듣고 싶으냐고 묻자 분명한 긍정의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내 영혼에 음악 있나니
왕께 드리는 노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예수 들으시네...”
(찬송가, 39장)

히더가 그 가사에 너무나도 강한 반응을 보여 나는 노래를 멈추었다. 그녀를 쳐다보며 그 순간의 중요성과 실재를 깨달았다.

“히더야, 그 부분이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냐? 그것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니?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를 예수께서 들으신다고 그것이야?”하고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간증을 한 것이다.

영의 인도를 받아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히더야, 예수께서 네 마음과 영혼에 말씀해 주시니?” 그녀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가 영과 것처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경건한 기대를 갖고 이렇게 속삭였다. “히더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자신의 통찰력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질문을 기다리는 그녀의 밝은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느꼈다. “예수께서 너에게 ‘히더야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녀의 눈동자는 그 말을 확신하듯 빛났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침을 삼키고는 다시 물었다. “그가 너에게 ‘히더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하고 말씀하시니?” 그렇다고 했다. 나는 다시 멈추었다가 목메인 소리로 물었다. “그가 너에게 ‘히더야, 참으렴. 내가 너를 위해 훌륭한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시니?”

히더는 머리를 똑바로 들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전신은 감전이라도 된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특별한 아이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훌륭한 것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참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은 다른 말을 하기엔 너무나도 엄숙했다. 나는 머리를 숙여 나의 불을 히더의 불에 갖다 대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밝고 푸른 창문을 통해 진리가 알려진 것이다.

그렇다 히더야, 예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실 수 있단다. *

언어 임상병리 의사인 진 언스트롬은 케이스빌 유타 그레스트우드 스테이크, 케이스빌 12와드 초등학교 교사이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알베르티나 반 델 하젤 · 호게르만

네델란드의 미드윰라에서 한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매주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안 다니셨으며 종교에 관해 말씀도 안하셨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 즉 너무나도 크신 분이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며 너무나도 작아서 나의



마음속에도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 일곱 살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찬송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를 만났으며 장차 남편이 될 사람과 함께 당시 우리가 살고 있던 아머스프트에서 첫번째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오 높은 영광 보좌”라는 찬송가를 들었으며 그 가사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
거룩하여라 당신의 처소 내 영이 함께 거하던 곳
귀하여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컸던 곳
(찬송가 118장)

나는 그 노래와 노래에서 표현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그만 만나라고 하셨으며 우리는 침례받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결혼을 하여 로텔담에 살면서 우리는 가두 전도를 하는 선교사를 만나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28년 9월에 남편과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후 몇년간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으며 우리 개인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 딸이 생후 일 년쯤 되었을 때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의사들도 그 아이가 거의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뇌의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어 거의 그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신권에 대해 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딸 아이가 신권의 축복을 받고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네델란드에서 끔찍한 2차 대전 중에도 남편과 함께 숨어

있는 동안 폭탄이 터지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 성도들 가까이 있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때의 어느 날 나는 열 살짜리 딸과 함께 혼자 사는 나이트 자매를 방문하려 갔습니다. 스미트 자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영적인 음식이 그녀를 채워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이 배급제였으며 나의 주머니에는 아이들을 위한 빵 구매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배고픈 자매가 너무나 걱정스러워 나의 딸에게 구매표를 주면서 스미트 자매를 위해 빵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빵을 쥐버렸다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먹일 것이 걱정이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풀레에 있는 어떤 친척이 그들의 질녀를 시켜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봉투에는 석 장의 빵 구매표가 들어 있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1947년에 우리 딸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거의 없었고 딸 아이의 직장에서부터 얻는 수입이 끊겼지만 우리는 그녀의 선교 사업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만큼 가족이 축복을 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돈이 없었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매달 딸 아이에게 보낼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0년을 돌이켜 보면 내 생애에서 누린 가장 큰 특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내가 그에게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이 생애 동안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합당하면 그는 “하늘 궁전”에서 나를 맞아들이기 위해 기다리실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다이안 크라이프

나

의 목표를 모두 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나는 자신이 세상의 압력과 결정 사항 그리고 걱정 거리로 휩싸이게 되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밤 늦게까지 식사도 걸러 가며, 한꺼번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는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나의 감정적인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왔다. 나는 좌절감을 느끼고 나의 문제점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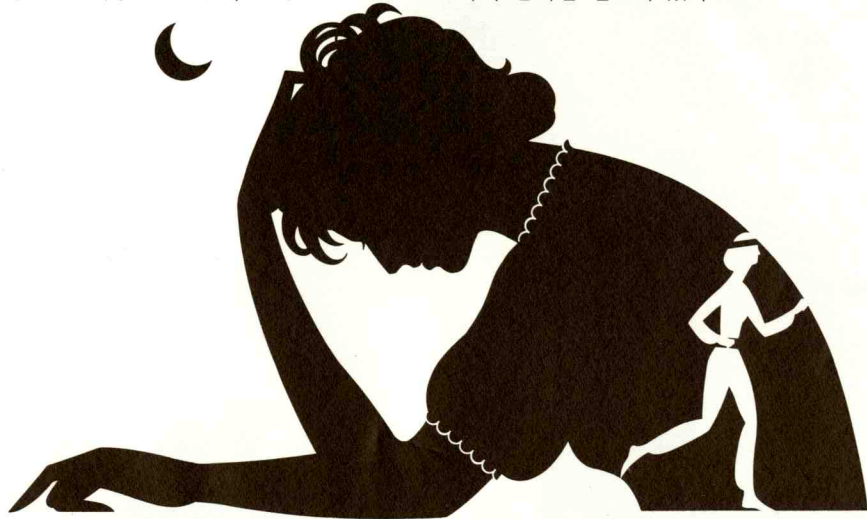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받기를 희망하며 간구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는 작고, 조용한 음성이었다. 나는 알 수가 없었고 실망이 되었다. 나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으며, 커피나 홍차도 마시지 않았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는 권고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될 수 있는가?

나는 친구들이 수차에 걸쳐 좌절감과 일을 해낼 수 없는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하여 말했던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감정을 극복했으며 살아 나갔다. 그러나 항상 무력감을 느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세우게

되는 공통된 문제점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목록에서 맨 뒤에 놓는 것이다. 그들은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지 않으며, 한밤중이 되어도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겨우 인정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선, 나는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에 집중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니 자연스럽게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양분이 골고루 든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운동했다. 내가 이러한 습관을 키워 나가자, 더 훌륭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나의 인생이 자리잡혀 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걱정했던 많은 문제가 이제는 하찮게 보였으며, 나는 자유롭게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느낌을 돌릴 수 있었다.

흔히 우리는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할 때가 많다. 아마도 우리는 야심이 가득 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가를 단순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난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가난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며 누구도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을 피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현명하지 않으면 가난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질문은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물질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고려해야 할 그 다음 질문은 그가 많은 돈과 시간과 영향력과 교육적 혜택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자원과 재산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쓰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것을 피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용어를 정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려해 보시도록 우리가 가난을 피하려 할 때 따라야 할 몇가지 “계명”을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친구를 잃지 말찌며 홀로 있기를 그칠지니라.

사람은 친구가 적을수록 가난합니다. 사람은 친구가 없을 때 가난합니다. 친구,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믿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우리는 가난합니다.

다. 우리가 친구를 잃을 때 선을 행하려는 소망처럼 우리의 힘도 자주 우리에게서 완전히 빠져 나갑니다.

흔히 우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치루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잃습니다. 미국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친구가 없을 때 가난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기를 그만둘 때 더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친구가 되려는 진지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멸로부터 그것을 보호할지니라.

사람은 그의 인격이 탐욕과 부정적으로 가득할 때 가난합니다. 압력에 못이겨 잘못을 행할 때 우리는 가난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대충 지내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가난합니다. 덕과 행동과 진리가 잘 조화된 삶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격은 인생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리와 성실을 지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개개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녀는 어떤 압박이나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원리들을 포기하지 않을거야!”

속이지 말지니라

악마가 좋아하는 도구는 기만입니다. 사탄의 기술은 그에게 “거짓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거짓되게 살

고 거짓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을 권장할 때 그 거짓을 권장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입힌 자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은 부분적인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원리를 타협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모두 인격이란 적절히 적용되는 교육이라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권장하는 것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높은 표준의 덕과 도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원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할지니라

가장 나쁜 형태의 패배는 자신에 의해 정복되는 것입니다. 패배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패배보다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는 것은 가장 비참한 형태의 가난입니다. 친구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때 인생에서 남게 되는 신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망 대신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은 가난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족과 자신과의 관계를 잊을 때 가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특별한 사람이며 그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직할지니라

사람이 정직을 인생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성책이라고 생각할 때 가난합니다. 정직한 양심은 가치로 계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가복음 8:16)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신뢰받는 것이 사려받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외침을 들었습니까? 정직이 없이는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없습니다.

그릇되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지 말지니라

가치가 의심스러운 어떤 것을 팔거나 장려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치 또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 “좋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현명치 못하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정직이란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모든 종류의 대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부정직에 고의로 가담하는 것은 가난쪽으로

우리가 자신에 대한 품위 및 존중감을 잃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가난이다. 친구 및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인생에서 남게 되는 신뢰란 별로 없다.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언하는 것이라고 믿지 말지니라

사람이 회개가 다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을 인식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회개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꺼이 회개하려는 사람은 그가 받는 것보다 많은 것을 빚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사람이 기꺼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가난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광고가 아닙니다. 회개는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대중 앞에서 또는 은밀히 행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자신이 돈으로 관리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신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관리하게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가졌든 또는 얼마나 적게 가졌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야 하며 그 범위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비상사태의 경우와 위기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도 반드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재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돕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돌봐주는 친구, 가족, 이웃,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이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일과 교육 또는 각오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적절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축적의 수단이 영예롭고 자신의 소유를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신이 된다면 우리는 가난해질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정직하게 성공하고 분명히 자신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가치를 그것이 높이 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유용함으로 평가합니다.

친구, 덕, 인격, 진리, 성실, 회개 및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와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값진 진주들입니다. 가난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사는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을 수정한 것입니다.

질문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나는 자주 걸인을 만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걸인에게 주는 것은 봉사라기 보다는 쓸데 없는 것이라는 생각 사이에 갈등을 느낍니다. 걸인에게 주기에 적절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존 에프 오도날
파테탈라 시티 성전장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여행하면서 때때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주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걸인들은 정말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빈곤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직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익성이 좋은 특정한 지역에서 구걸하기 위한 권리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걸이 삶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들로부
구걸하여 쉽게 돈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에게 그 활동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많은 경우에 범죄를 유발시키고 결코 자립하지 못하게 해 줍니다. 걸인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방법은 자신을 돌보도록 가르치고 자립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자립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부자 청년에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마가복음 10 : 17~22; 누가복음 18 : 18~23 참조)는 주님의 권고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는 그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국가 경제가 악화되고 걸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앞에 대두될 문제입니다. 구약전서에 보면 “땅에는 언제까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신명기 15 : 11)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역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하게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퍽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명기 15 : 7~8)

값진 진주는 우리에게 예녹의 도시에는 “저들이 한 마슬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해 줍니다.(모세서 7:18)

물론경에서 우리는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한 다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너희가 도울 것이요, 궁핍한 자와 더불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것이요, 구걸하는 자를 버려 두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모사이야서 4:16)

베냐민 왕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을 저마다 저 스스로 자기의 비참을 불러 갖는 것이매 나는 잠잠하여 음식을 나누거나 저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나의 재물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가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크게 뉘우칠 것이요...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4:17~18, 26 참조)

현 경륜의 시대에서 교회가 회복된 지 얼마 안되어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교성 42:30~31)

주님께서는 성도의 “재물은 교회의 감독과 두 사람의 장로 곧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임명될 자, 또는 이미 임명되어 성별된 대제사 앞에 바쳐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교성 42:30~31)

주님께서는 또한 예언자 요셉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교성 44:6)

오늘날, 교회 복지 프로그램과 금식 헌금은 교회가 그 회원들을 돕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회원까지도 궁핍하고 무능력하고 실직되어 있을 때 도와 주는 조직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후한 금식 헌금과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기 원한다면 지도자로부터 더 주라는 요청을 받을 때 큰 희생이 되더라도 후하게 줄 것이며 그러한 일로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는 한 조직으로서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접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궁핍한 자와 직업적인 결인과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구걸 행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경전과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준다는 것은 개인이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경험한 일이지만 수많은 결인에게 둘러싸이면 적은 돈이라도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는 매일의 기도도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우리가 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고 한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로 뛰어듦

데이비드 시 루이스

나는 십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을 하며 낭비하였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30

미터나 되는 벼랑 끝을 굽어보자 나는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자신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저 아래의 배에 탄 친구들은 내가 뛰어내리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였고 그로 인해 나는 뛰어내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호수 유원지에서 야영을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경치는 아름다웠고 기온은 매일 18℃까지 올라갔다. 건강하고 햇볕에 탄 열 여덟 살의 나이란 정말 신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 벼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의 배에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들은 모험적인 일을 하겠다고 언제나 떠들어 댔으나, 결코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학교에서도 언제나 “안전한” 일만을 하는 아이들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벼랑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호수물 속으로 뛰어내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웃었다.

맨 먼저 달려서 뛰어내린 사람은 브라이스였다. 나는 그가 공중에서 떨어지며 몸을 상하좌우로 트는 것을 보았고, 물에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멀리서 들었다. “이제 네가

뛰어내려야 해!” 그는 보트에 몸을 실으면서 내게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세 친구가 나를 향해 빙그레 웃는 것이 보였다. 30미터의 벼랑을 뛰어내리는 것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나는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 왔다. 그렇지만 어떻게 뛰어내리지 않을 수가 있던 말인가? 친구들은 내가 뛰어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만일 내가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내가 뒤로 물러서서 브라이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되뇌일 것이다.

내가 막 뛰어내리려 하는 순간 켈리가 나를 앞질러 뛰어내리면서 흥분해서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그가 물에 부딪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배 안으로 끌어 올릴 때 그의 울음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충돌할 때 무릎을 부딪혀서 그는 양쪽 무릎을 수술한 후 남은 여름 내내 다리에 기부스를 해야 했다.

남은 우리들 세 명은 사실 이제 뛰어내린다는 것이 겁났으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브리검 영 대학에 입학한 것과 대학 1학년을 마친 후 선교 사업을 하려던 계획에 대해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뛰어내렸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심하게 다친다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에게 인상이 보이는데 그토록 중요한가?

“네가 성공할 확률은 50퍼센트이고 내가 다칠 확률도 50퍼센트야.” 브라이스가 아래에서 성급하게 내게 고함을 지렀다. 그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생각이 아니었다.

나는 벼랑 끝에서 천천히 뒷걸음을 친 다음 앞으로 달려 땅바닥에서 몸을 솟구쳐서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팔을 흔들면서 급히 떨어지면서 나는 곧장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물에 부딪힌 순간은 마치 폭발하는 것 같았고, 내 등에서 무엇인가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이 물 속 가라앉을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천천히 표면으로 떠오를 때 나는 마치 폐가 폭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내 표정을 보고 웃는 친구들의 웃음 소리만 들렸다.

내가 몹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맨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테드였다. 그는 나를 배로 끌어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그치라고 말했다. 그들이 나를 무릎 다친 켈리 옆에 누여 놓을 때 나는 등의 통증에 대해 무어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윽고 고통 때문에 그와 함께 내내 신음 소리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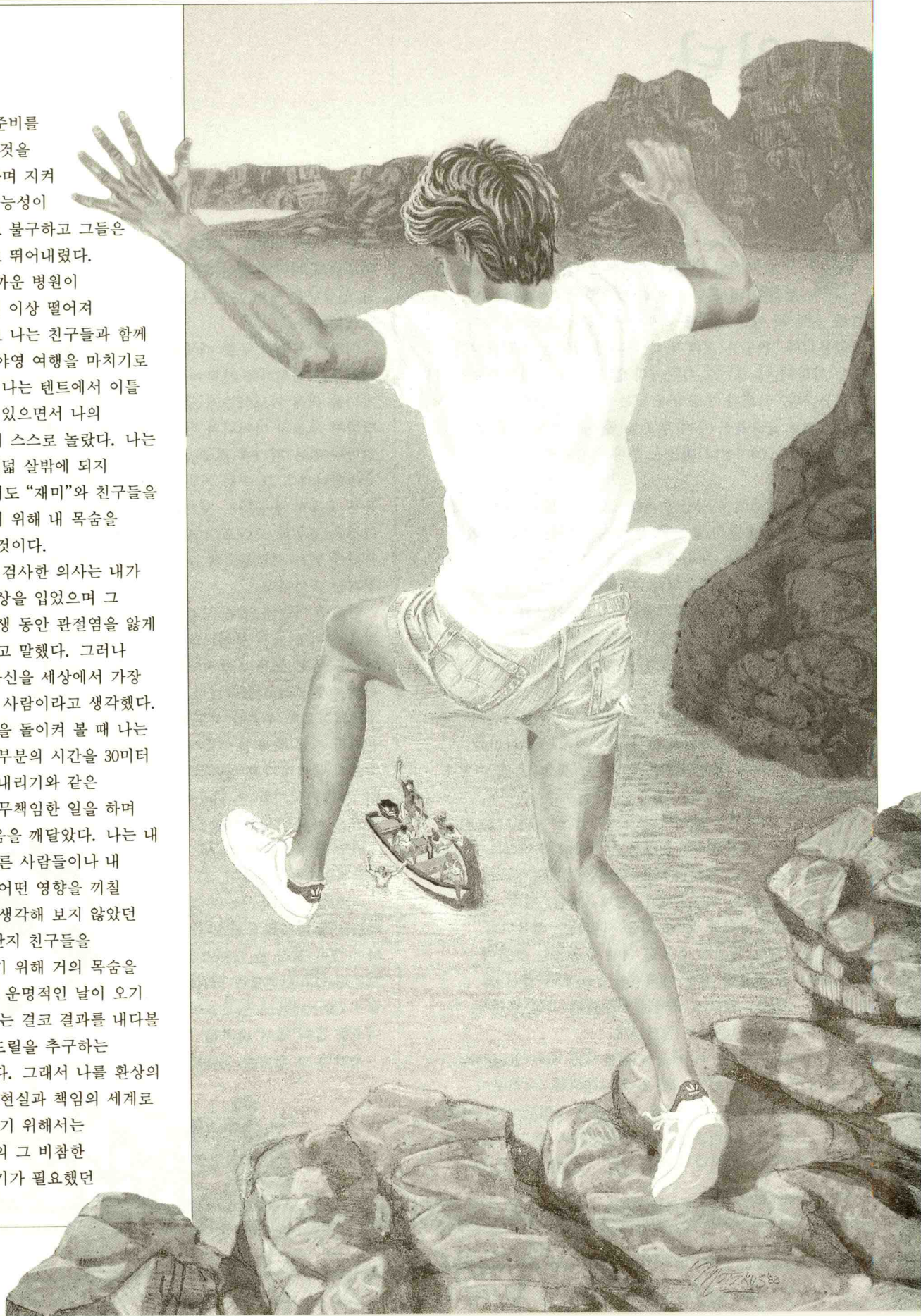
그때 켈리와 나는 벼랑 꼭대기에 남아 있던 두 친구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안절부절하며 지켜 보았다.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뛰어내렸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으므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머물면서 야영 여행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나는 텐트에서 이틀 동안 누워 있으면서 나의 어리석음에 스스로 놀랐다. 나는 불과 열 여덟 살밖에 되지 않았으면서도 “재미”와 친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내 목숨을 내걸었던 것이다.

내 등을 검사한 의사는 내가 압착 골절상을 입었으며 그 때문에 일생 동안 관절염을 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침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30미터 벼랑 뛰어내리기와 같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을 하며 낭비하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친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거의 목숨을 내던진 그 운명적인 날이 오기 전에는 나는 결코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드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를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책임의 세계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는 호수에서의 그 비참한 뛰어내리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



응원단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몇 년 전에 나는 축구 경기를 관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가 있었던 자이언즈 팀이 별로 성적이 좋지 못했던 푸마 팀을 이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해 초에 두 팀은 경기를 하여 푸마 팀이 크게 진 적이 있었습니다. 관중은 거의 반씩 나뉘어 양팀을 응원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 있는 두 명의 선수의 맹활약으로 군중들은 푸마 팀으로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15,000이상의 팬들은 푸마의 승리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응원단은 인생에서 양상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를 보면 홈팀이 경기를 잘 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홈 경기에서 거의 결코 지지 않는 축구 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라질에 있는 마라카나 경기장은 220,000이상의 관중을 수용하는데 그들은 매 경기마다 커다란 함성으로 응원을 합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러한 응원단을 갖고 있다면 홀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경기에 이기든 지든, 승리로 기뻐하던 패배로 물러가든 누구에겐가 그러한 응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는 우리 각자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응원단을 갖고 있음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을 품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교사, 친구 등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랑하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상에서든 또는 이 세상 저편에서든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결혼하여 조그마한 가족을 가진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가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대단한 팬이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늘 선생님을 지켜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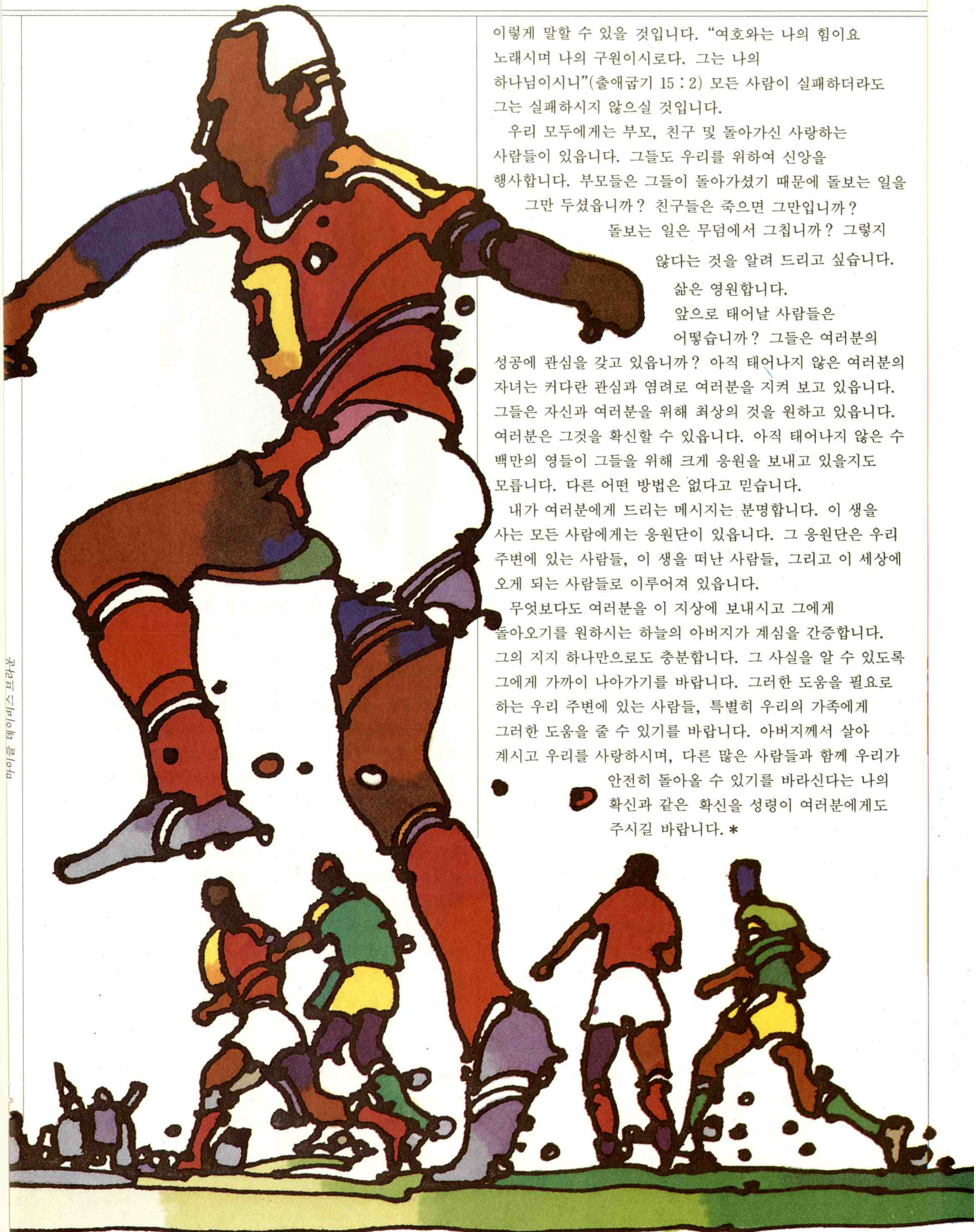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에라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에 친구들이 조용히 다른 사람을 위해 응원합니까? 그 수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을 압니다. 물론 조용히 응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나는 특별히 높은 곳에서 응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의롭게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이후에 안전하게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도움도 느낄 수 없을 때 그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다윗과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시편 27:14)

의로운 일을 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그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는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우리가 그 위대한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출애굽기 15:2) 모든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그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 친구 및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위하여 신앙을 행사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보는 일을 그만 두셨습니까? 친구들은 죽으면 그만입니까?

돌보는 일은 무덤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영원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는 커다란 관심과 염려로 여러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 최상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백만의 영들이 그들을 위해 크게 응원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응원단이 있습니다. 그 응원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생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이 지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의 지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나의 확신과 같은 확신을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특권이다

에이 린 스코스비



나는 선교사들을 접견하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와 준비 정도와 봉사에 대한 헌신을 알게 되었다.

잇

지 못할 한 성찬식에서 나는 참으로 복음의 전세계적인 특성을 느꼈다. 성찬 축복은 불어와 독일어로 행해졌고 말씀은 이태리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행해졌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노래가 10개국의 언어로 불리어졌는데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불어, 통가어, 사모아어, 네덜란드어가 그것이다. 전회중은 영혼을 울려 주는 영의 언어를 통해 깊이 감동되었다.

당시에는 이것이 내게 매우 특이하게 보였지만, 내가 최근에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MTC) 지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성찬식에 점점 익숙해졌다. 나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지부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한번은 모두 똑같은 간증과 구세주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나온 18개국의 선교사들을 맞이한 적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나서 접견하고 그들을 도우려 할 때의 흥분된 기쁨은 내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봉사하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선교사들을 알게 되는 것이 즐거웠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의 감정을 압도하는 축복이었으며, 그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나는 선교사들을 접견하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와 준비 정도와 봉사에 대한 헌신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어떤 선교사들은 준비가 잘되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선교사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마음 중심이 전혀 되어있는 것은 선교사도 있었다. 또한 매우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별로 헌신적이지 못한

선교사도 있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회개과 특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된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킴

나는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이 두 말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사용하며 때로는 이 두 가지 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주목했다. 어떤 선교사들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에서 2년이란 시간과 재물과 여자 친구를 희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다. 다른 선교사들은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특권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이 두 말을 매우 자주 들었으므로 선교사들이 자신의 말을 행동과 어떻게 일치시키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온 한 장로는 자신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항상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스위스에서 직장을 얻어 근무하고 있었다. 혼자 생활하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으므로 하루는 “하나님이시여, 제게 진리를 내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했다. 며칠 후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낯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젊은이, 나는 자네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웬지 그 이유를

모르겠구먼.”이라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낯선 사람은 복잡한 그 거리를 함께 걷고 있던 교회 회원이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영감을 느꼈었던 것이다. 이 새로 온 장로는 자신의 선교 사업을 특권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온 한 자매는 이미 한 번 복음 선교사로서 선교 사업을 마쳤으나 다시 복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돈을 벌려고 즉시 간호원으로 일했다. 처음에는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허락을 하려 하지 않았으나, 그녀가 계속 주장하자 그들도 마침내 동의하였다. 그녀는 칠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멕시코 출신의 한 장로는 즐거워하며 자신의 가족 사진을 내게 보여 주었다. “보십시오. 제 아버지는 이 구두를 사주시기 위해 두 달 동안 저축을 하셨습니다. 지부 회원들은 돈을 모아 이 양복을 사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모아 출신의 장로 한 사람이 도착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물론경을 높이 들고 회중 앞으로 걸어갔다. “저는 이 책이 참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열 다섯 남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부친은 그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교회 지도자들인 다른 사람들이 부친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프랑스에서 복음에 대해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진 못했으나 그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말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했다. 토론을 공부한 후 그는 몇 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 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매우 어려움을 겪다가 그들의 충고를 기억하고 침실로 가서 기도도 도움을 간구했다. 한 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문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는 세찬 비바람 속에서 5킬로미터를 걸어와 비에 흠뻑 젖은 선교사들이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라고 그가 묻자, 선교사들은 “우리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깰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여기에서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사랑과 감사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 선교사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들 두 사람은 선교사 훈련원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초청하여 우리 모임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 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업을 특권이라고 말했다.

어떤 장로는 베트남을 출발하여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의 피난민 수용소에 도착한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 살 수 있도록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던 중 어떤 사람이 사진과 주소가 있는 작은 카드를 그에게 주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것을 간직했다. 후에,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 카드를 세관 관리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 지역으로 보내 드리지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솔트레이크에서 한 말일성도 가정과 함께 살도록 보내졌으며, 그는 그곳에서 교회에 대해 배웠다. 그는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피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받았던 카드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선교사 훈련원 사진이었다.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지부장님.”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봉사의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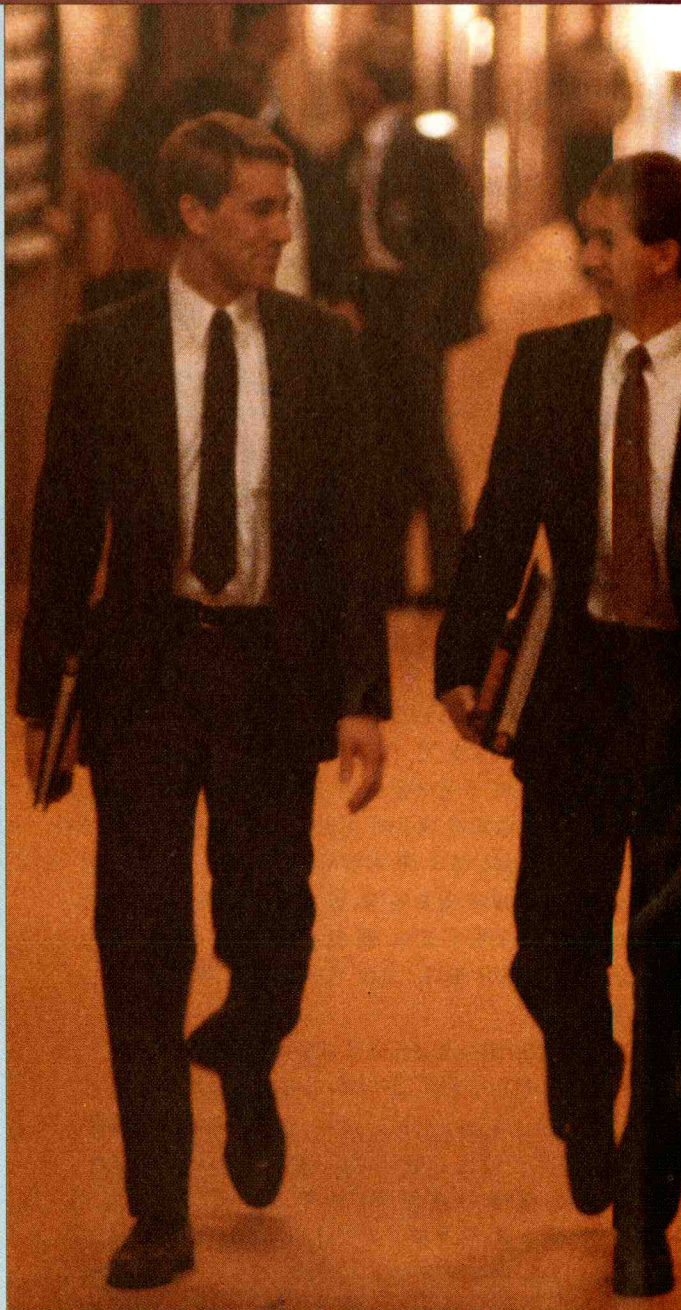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특권은 여러 면에서 느껴지고 증명된다. 어떤 선교사는 소년시절부터 가정 문제로 고통받았다.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그는 가정에서 쫓겨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다. 복음은 친부모가 그에게 주지 못했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수년이 지난 뒤 대학 미식축구팀의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된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학교 친구들에게 물론경을 나누어 주었다. 팀 코치와 동료 선수 및 선생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에 200권 이상을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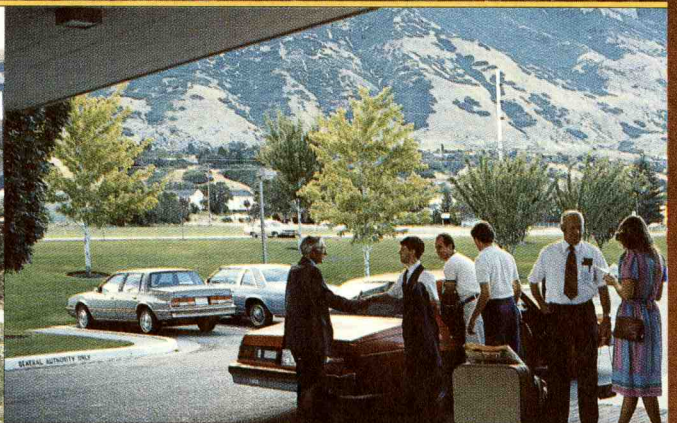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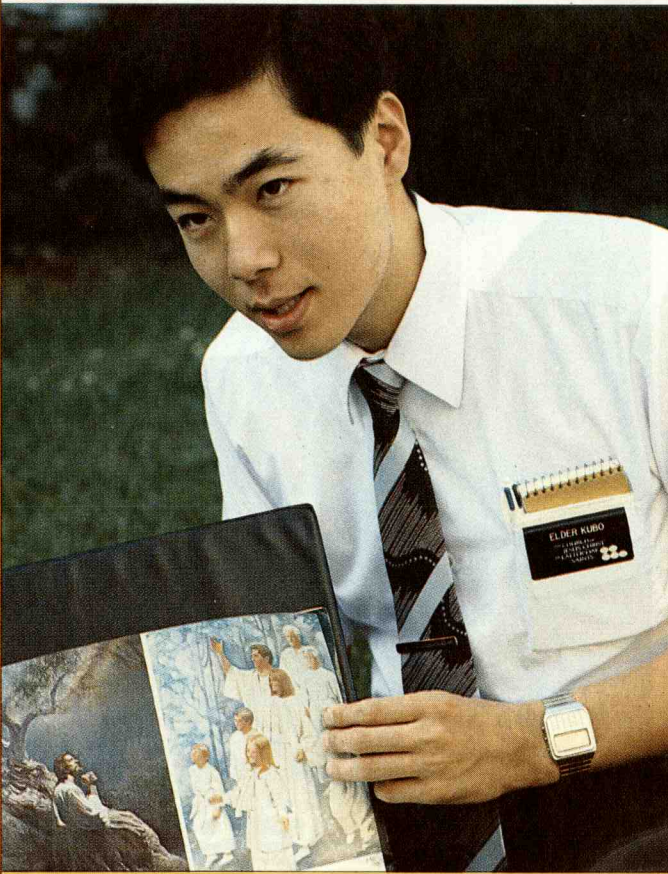
선교 사업을 희생으로만 여기는 선교사들은 종종 주님의 사업을 위해 정직하게 헌신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보통 구세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경전을 공부하고 구세주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넓어진다. 그들은 구세주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다. 처음에 희생이라고 말하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훈련원을 떠날 때는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마지막 성찬 모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한 장로가 일어섰다. 그는

서투른 영어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그의 말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강한 목소리였다. 그는 폴란드 크라코우에서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았으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는 그 교회의 몇몇 교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그대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성장함에 따라 그는 점차 정부와 맞지 않았고 열 여덟 살 때에는 오스트리아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미국으로의 이민 승락을 받기 전 9개월 동안 그는 비엔나 근처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여러 교파들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던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느 날 그는 물론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는 자기가 본 것에 관하여 좋은 느낌이 들었으므로 그 교회에 관하여 좀더 많은 것을 알아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스물 다섯 살 때에는 선교사로 봉사했다.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특권이며 내가 오래 동안 바라던 일입니다.”라고 그는 굵은 폴란드 액센트로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든 구세주께 봉사하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특권이다.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나는 쉽게 인생을 사는 젊은이 또는 주님을 모르며 혹은 두려움에 떨거나 무관심한 젊은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속주에 관하여 배우며,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분께 봉사할 기회를 찾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감

사합니다. 부장님. 내일 거기로 가겠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고 혼자 생각했다. 미시시피 잭슨 선교부 부장은 방금 내게 전화를 하셔서 루이지애나주 모우리 지역의 선교 사업을 2주 동안 돕도록 부탁하셨다. 참된 선교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고 나는 거듭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짐을 꾸리고 기도하며 앞으로 2주 동안 접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준비하며 그 이후의 24시간을 보냈다. 나는 함께 봉사하게 될 선교사인 에버트 장로와 왓킨스 장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구했다.

토요일은 빨리 다가왔다. 가족들은 나를 모우저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은 다음 나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영원처럼 느껴졌으나 사실은 겨우 10~15분 기다렸을 때, 나보다 겨우 몇 년 연상인 듯한 두 젊은이가 선교부의 차를 타고 도착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다만 에버트 장로에게 수줍게 자신을 소개했다. 참으로 훌륭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왜 거기에 왔는가를 의아해 했다.

왓킨스 장로를 만난 후 나는 그 두 사람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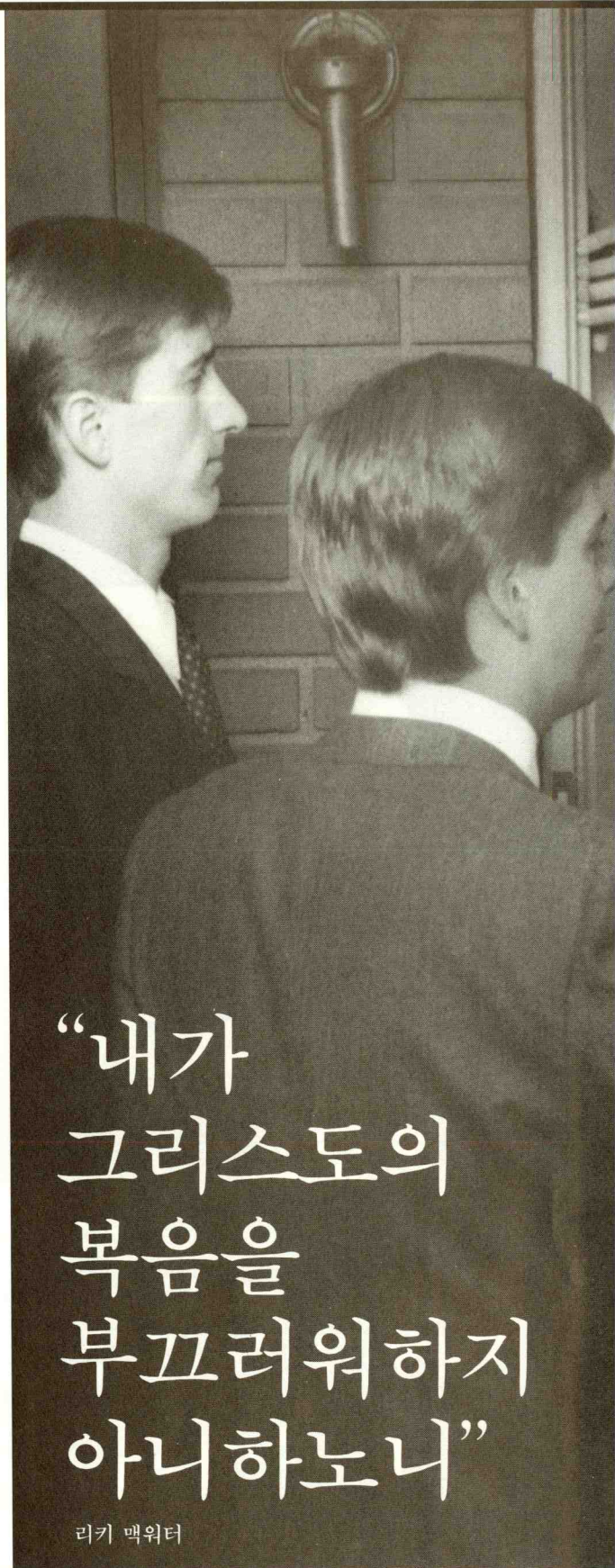
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미처 깨닫기 전에 장로들과 나는 길거리에 나가 문을 두들겼다. 장로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가를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시간쯤 지난 후에 에버트 장로는 나를 돌아보더니, “맥위터 형제님, 다음 집에서는 형제님이 우리를 소개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라며 나는 당황하여 대답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에 개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리키 맥위터



문이 열리자 나는 마음이 움추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에는 술에 취한 침대들이 가득 있었다. 사실 내 자신 역시 침대였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유혹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나는 마음이 움추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에는 술에 취한 침대들이 가득 있었다. 사실 내 자신 역시 침대였다. 내가 나와 동반자들을 소개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유혹하기 시작했다. 왜 주님은 나를 보내셨을까? 나는 속으로 자문했다.

남는 저녁 시간에 나는 또 다른 집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날밤 늦게 나는 복음 선교사로서의 하루를 생각해 보았다. 왜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 왜 나는 복음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겁내는가? 2주 동안 용감하게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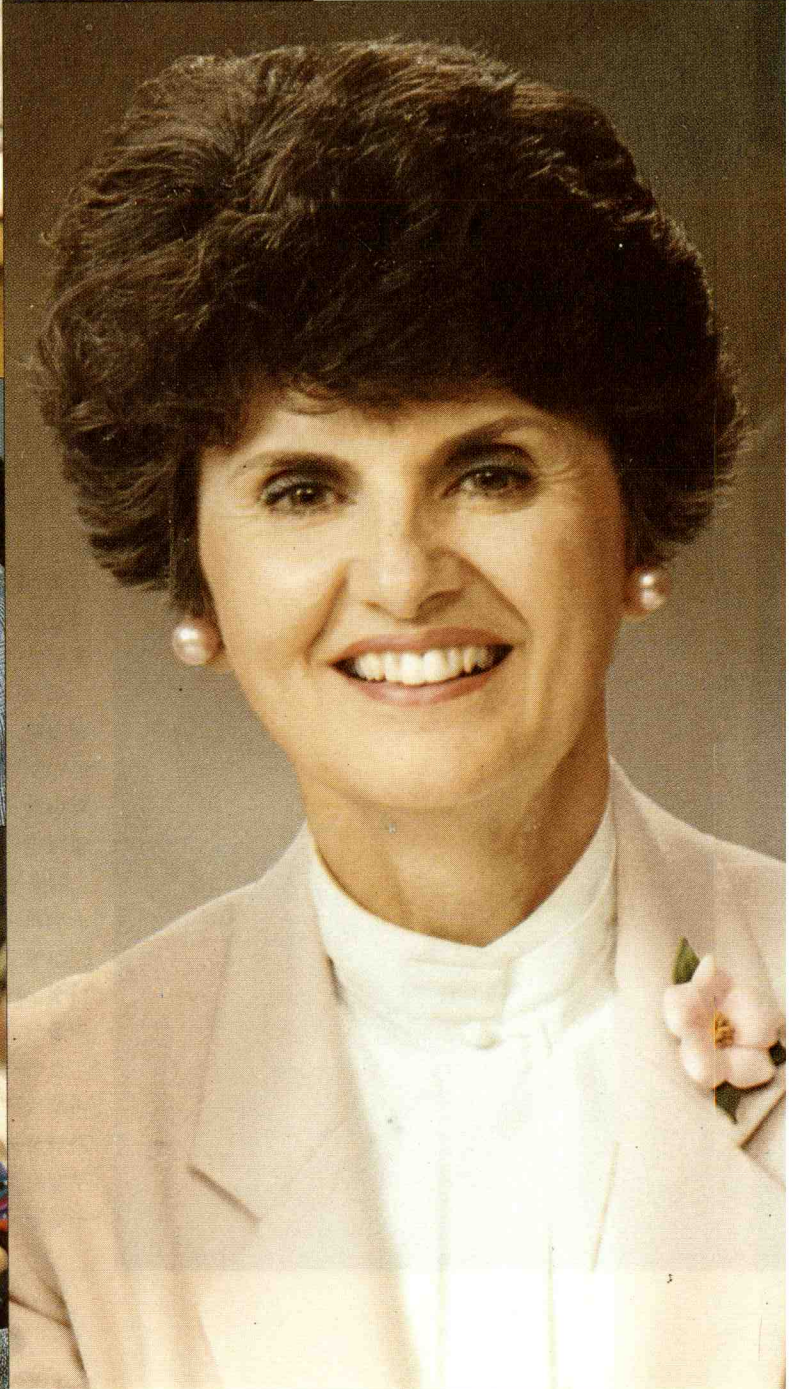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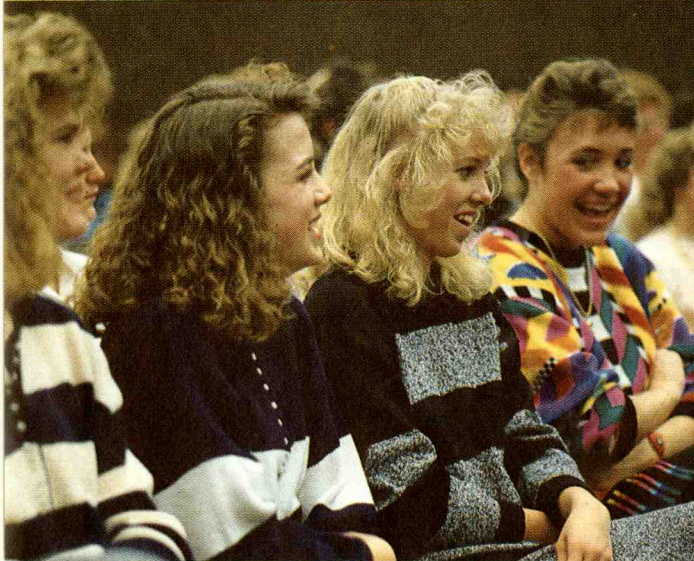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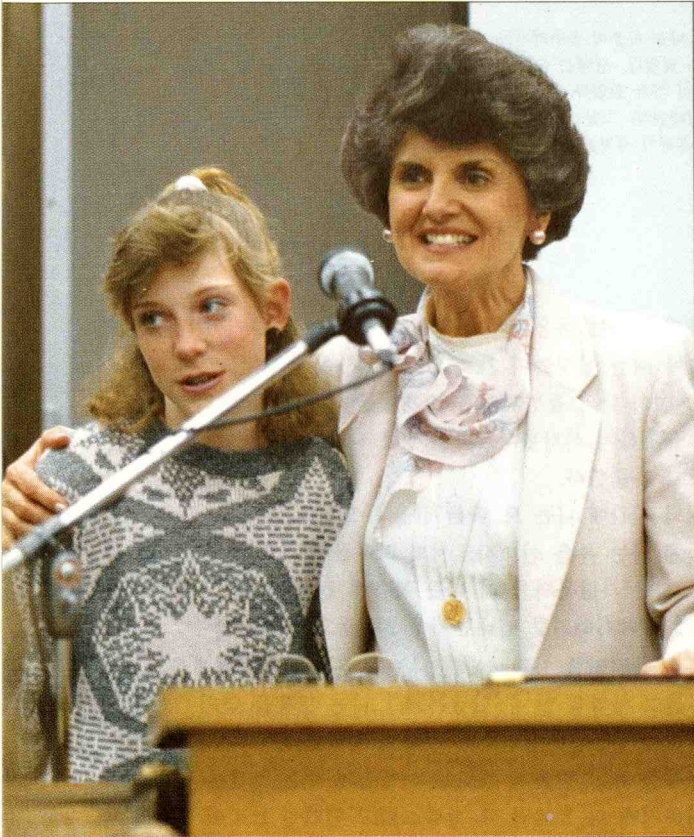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기도로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토로할 때 평화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나에게 엄습했다. 작고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경전을 상고하라고 말했다. 나는 성경을 살살이 읽기 시작했을 때 붉은 색으로 표시된 한 절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신학 연구원 중등부 시간에 표시해 둔 성구였다. 그 성구를 읽으면서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이해하는 따뜻한 느낌이 나를 감쌌던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이 성구가 이때처럼 내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준 적은 없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다면 아무도 이생 이후에 계속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깰 때 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강한 소망과 결실을 느꼈다.

그때 2주 동안 내가 가르치는 것을 도와 준 사람들 중의 다섯 사람은 이미 교회에 가입하였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힘은 얼마나 위대한가!

로마서에 있는 그 중요한 성구의 메시지에 관하여 성신이 내게 간증을 전해 주었을 때의 느낌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오늘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에 부딪힐 때면 그때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 “구원을 주는 능력,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내 귀에 속삭인다.*



여러분은 바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인

아데스 지 캡 자매와의 대담

한 특별 대담에서 본부 청녀 회장인 아데스 지 캡 자매는 청녀들이 주님께 더욱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

캡 자매는 자신의 생애를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나는 캐나다 앨버타의 작은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내가 전세계 교회의 청녀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분께 봉사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부름을 주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의 어느 다른 청녀들도 그분께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많은 청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캡 자매는 “나는 그들의 간증이 점차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감각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아무리 소외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보다 크고 중대한 조직의 일부라는 느낌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청녀 개개인을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나는 각 소녀를 내 팔로 안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 중에는 남미나 유럽 또는 일본의 조그맣고 외떨어진 지부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자기 고장이나 마을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인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청녀 가치관을 지킨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담긴 바구니를 든 어린 소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요한복음 6:3~13)를 기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줄 음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떡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적은 양의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떡이 남았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어린 소년에게 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그 소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제가 무슨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드릴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소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으며, 그가 바친 것은 주님의 축복으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청녀들이 각각 자신의 의로운 모범을 주님께 바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꿈도 꾸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각 청녀들이 계속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것을 기억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한다면 바칠 물건을 가지고 있던 어린 소년처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자 그들을 이용하시기를 원할 때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꿀벌만 고문이나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또는 나처럼 교회의 모든 청녀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지도 모릅니다.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언젠가 쓰셨던 글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생전에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되며,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이 정결케 되고, 힘을 얻게 되며, 영혼을 고양시키고, 축복을 더하며, 영혼을 위로하고, 친구를 얻게 되며,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사와 유산,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페리 머클리





헬리오 다 로차 카마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며 브라질 출신인
헬리오 다 로차 카마고 장로와 자넷 피터슨과의 개인 접견에서 발췌함

“내 조상은 미국을 횡단하여 유타주로 간 개척자가 아닙니다.”라고 헬리오 카마고 장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는 가족 중에서 맨 먼저 교회에 가입한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그들 역시 개척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카마고 부부는 31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브라질 전체에 선교부가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던 상파울루에는 교회의 지부가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브라질에는 54개 스테이크와 9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브라질 내의 교회의 성장은 회원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라고 카마고 장로는 말씀했습니다.

사남매 중의 막내인 카마고 장로는 리오데자네이로주의 레젠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라질 인구의 대부분은 카톨릭교도였으나 그는 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부모님은 경전을 읽으며 배우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음이 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경전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교회의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그곳에서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이 내게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카마고 장로는 특이하게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장교로 얼마 동안 복무한 후 카마고

장로는 신교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감리교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신학교 수업 시간 중 한번은 교사가 어떤 기독교 집단의 믿음과 교리에 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내가 교사에게 물문에 관하여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물문이 기독교인인지조차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 이름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름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는 ‘우리가 그들의 목사 한 사람을 초청하여 그들의 교리에 관해 설명들을 수 있도록 자네가 상파울루에 물문이 있는지 찾아보면 어떻겠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부로 찾아가 선교부장을 만났고,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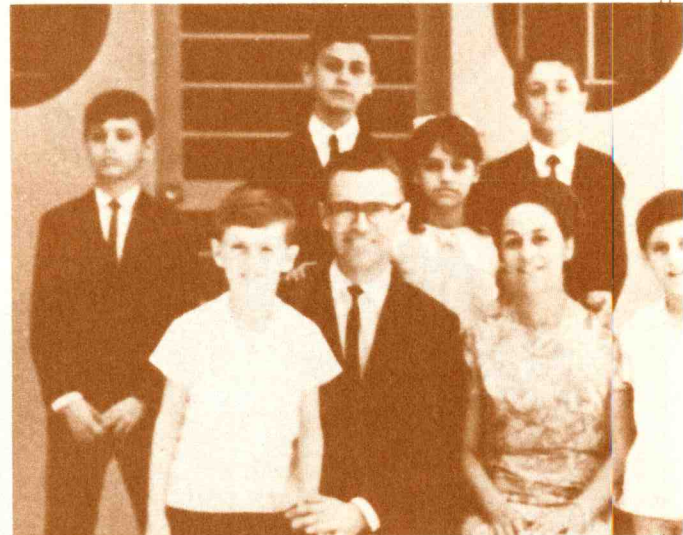


선교사 두 명을 우리 수업 시간에 보내 그 교리를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떠났고 약 8개월 동안 복음을 공부한 다음 아내와 다섯 자녀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다음 곧 또 자녀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카마고 장로 반의 다른 두 사람도 신학교를 떠나 이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카마고 장로와 그의 아내는 참으로 개척자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만, 자동차 사고로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모두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모두 충실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손자 손녀가 열 네 명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규율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처음에 군대를 선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순종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순종은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내가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모와 지도자들을 믿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무엇이 여러분을 위해 옳은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팻 그래함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께서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니파이일서 1:1)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른
자녀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때로는 여러분이 용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리하이와 니파이와 암몬, 그리고
몰몬경에 나오는 그밖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충실했기
때문에 종종 혼자 고립되어야 했으며 목숨이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룩해야 할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안다면 의롭게 서며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시 사항

1. 두꺼운 종이에 얼굴을 붙인 다음 색칠한 후 오려 내어
각각 막대기나 연필에 붙입니다.
2. 가족 모두에게 한 개씩 주고 시에서 해당된 얼굴을
읽을 때 위로 쳐들게 합니다.
3. 가족끼리의 닳은 점과 다른 점을 토론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귀하다

둥근 얼굴
홀쭉한 얼굴
주근깨가 있는 얼굴
턱이 긴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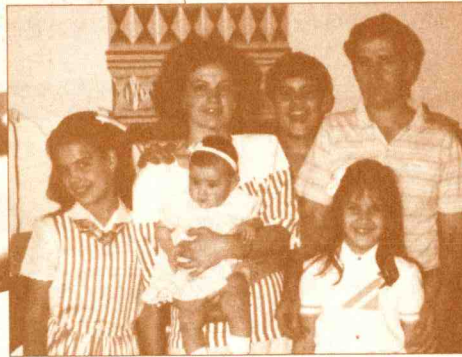
어린이의 얼굴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어린이는 귀하다
여러분은 오직 한 사람뿐이니





어린 시인의 말

다이안 브링크먼



브라질 상파울루의 안나 카롤리나 아세드는 시를 쓰는데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매우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시집 거울은 1987년 10월에 출판되었는데, 그때 그녀가 나이는 불과 열 한 살이었습니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안나 카롤리나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자기 전에 부모에게 책을 읽어 주도록 즐겼습니다. 다섯 살까지 그녀는 읽기와 쓰기를 혼자 배웠습니다. 곧 그녀의 창작 재능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시로 시작했으며 민요는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를 써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안나 카롤리나는 성숙함에 따라 시도 그녀와 함께 성숙해져 감을 느낍니다.

1976년 3월 31일 상파울루주 리베이라오프레토에서 태어난 그녀는 전기 기사인 로제 로베르토 아세드와 교사인 안나 마리아 아세드의 딸입니다. 그녀에게는 오빠 아도 로베르토와 두 여동생 마리어나와 로라 헬레나가 있습니다. 아세드 가족은 교회 회원이 된 지 6년이 지났으며,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인봉받은 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서, 음악, 그림, 조각에 관한 흥미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가족입니다.

뛰어난 학생인 안나 카롤리나는 브라질 문학을 사랑하며, 또한 현대와 고전 프랑스 작가들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교회의 표준 경전을 모조리 읽었으며,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의

친구 사귀기

내 아직 어릴 때
잠시 동안이나마
풍부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멀리 날아가게 할래요

바다 위로 높이 날고
땅에서 헤엄치며
푸른 창공에서 놀게 할래요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상상이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는 오히려 다른 일을하기를 좋아합니다.”라고 안나 카롤리나는 말합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는 것 외에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피아노를 치며 연극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 한 가지는 1900년대 초기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을 좋아합니다.

이 특별한 어린 소녀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일본 일초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불과 열 두 살의 적은 나이지만 그녀의 지혜는 나이에 비해 몹시 훌륭합니다. 그녀는 “시간”이라는 아래의 시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보여 줍니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날아간다
빨리 매우 빨리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훌륭하게
참으로 훌륭하게

모든 순간은 지나가고
정말이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단순히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

꿈을 가지고 있는냐고 질문하면
그녀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중에서 큰 꿈 하나는 카를로스 드러몬드 안드라데(브라질의 유명한 시인)을 만나는 것이고, 또 다른 꿈 하나는—하찮은 것이겠지만—내 자신의 침실을 갖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침실 한 개에서 여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질문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거울의 출판 이후, 안나 카롤리나는 텔레비전 대담쇼에 나갔으며 신문과 잡지에 얼굴이 실리고 공개 서명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나타낸 브라질의 유명한 몇몇 시인들과 그녀를 견주어 왔습니다. 감작스러운 이러한 모든 성공이 부모에게는 몇 가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안나 카롤리나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낄까요? “내 인생은 겨우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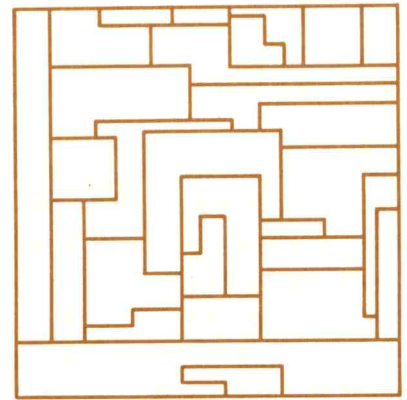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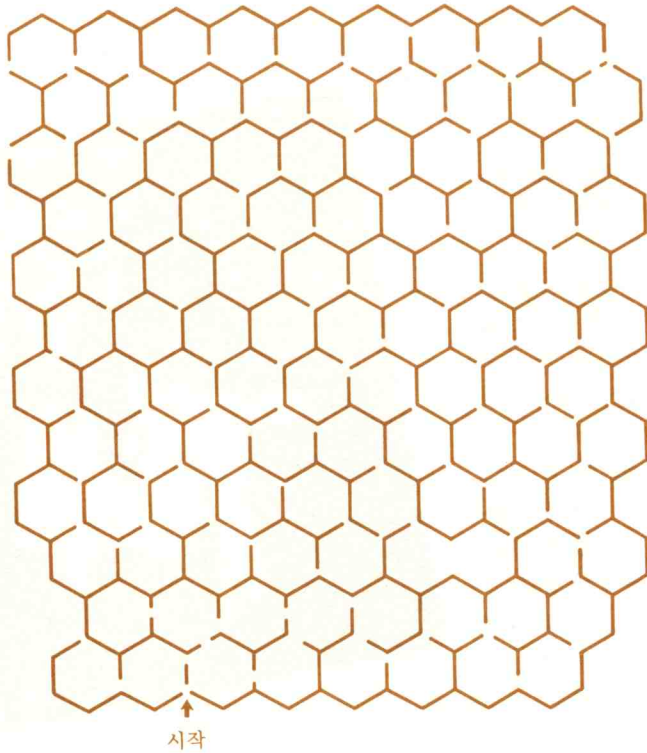
나는 자주
생각하며
놀라네
이 세상
반대쪽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으나
여전히 내일이 있네...
눈 속에서는 어린이들이 뛰어 놀며
푸른 하늘과 나비가 있고
희망과 환상과
사랑과 추억이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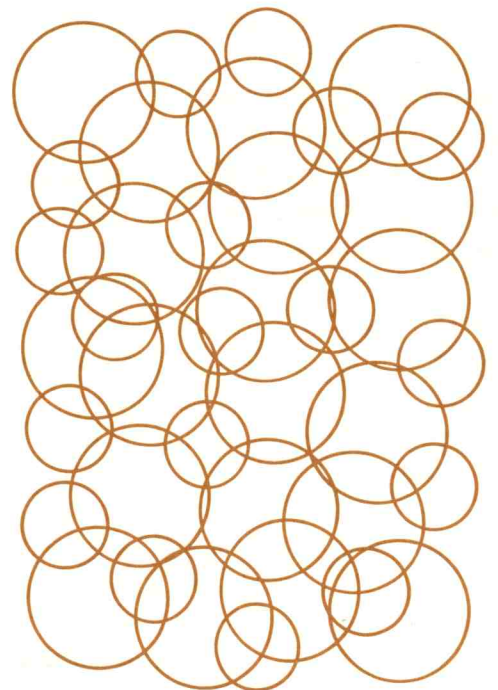
심심풀이

리치 라타

꿀벌집을 통과하여 출구로 가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② 이 그림 안에 큰 동그라미는 몇 개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는 몇 개가



올림픽을 빛낸 말일성도들

제24회 서울 올림픽!

우리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전인 서울 올림픽이 지난 10월 2일 열린 16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림픽은 공식 개막일인 9월 17일 훨씬 전부터 문화 예술 축전의 막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예술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문화의 진수를 선보였다. 각종 경기에도 전 세계 160개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제각기 기량을 겨루어, 많은 신기록이 쏟아지는 등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서울 올림픽에 국내외의 많은 말일성도들이 참가하여 그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본다.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말일성도 선수들

160개국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위하여 기량을 겨루는 올림픽경기에 피부의 색깔과 국적이 다른 많은 선수들 중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 선수들, 그들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물론 선수들이다.

이번 올림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일성도 선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헨리 마쉬 : 미국 육상(장애물 경주) 선수
- 다그 파달라 : 미국 육상(5천미터) 선수
- 에드 아이스톤 : 미국 마라톤 선수
- 마크 풀러 : 미국 레슬링(그레코로망) 선수
- 트로이 태너 : 미국 배구 선수
- 마이클 에반스 : 미국 수구 선수
- 칼 킬맨 : 캐나다 농구 선수
- 보 구스타프손 : 스웨덴 경보 선수
- 투알라우 팔레 : 통가 권투(헤비급) 선수
- 파라코 바카 : 통가 권투(미들급) 선수

이들 선수중에는 이번 올림픽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사람들도 있다.

헨리 마쉬 형제는 세번이나 세계 기록을 경신한 세계적인 선수로서 지난 LA올림픽 때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아깝게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다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4번 씩이나 올림픽 출전권(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부터)을 딴 집념의 선수이다. 이번 서울 올림픽에서는 아깝게도 6등에 그쳤다.

다그 파달라 형제는 31세로서 1985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한 세계적인 선수이다.

에드 아이스톤 형제는 처음에는 10,000미터 선수로 더 유명하였으나 최근 마라톤으로 전향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다.

칼 킬맨 형제는 캐나다 농구팀의 가드로서 재빠른 몸놀림과 정확한 슈트로 캐나다가 8강전에 진출하는데 공헌을 한 유능한 선수이다.

보 구스타프손 형제는 지난 LA올림픽 때 은메달을 딴 선수로서 끈기와 집념이 필요한 경보를 통하여 자신을 이겨내는 우수한 선수이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비록 이들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말일성도로서의 그들의 간증을 한국의 말일성도들에게 전하는데 한치의 손색이 없었다.

이들 선수들은 지난 9월 24일 저녁 바쁜 경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독신성인들과 함께 노랑진 와드에서 열린 우정의 밤에 참석, 국적을 초월한 우정과 간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 상태 서스테이크 부장 보좌의 감리로 가진 이 모임에는 이들 선수와 가족들이 참석, 독신성인들이 준비한 노래와 무용을 즐겼다.

발표 순서가 끝난 후 고 원용 형제의 통역으로 각 선수들에 대한 소개와 간증을 들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업을 마쳤으며, "우리의 생애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십시오"라고 간증한 헨리 마쉬 형제의 말씀처럼, 비단 운동에서만 성공한 선수들이 아니라 신앙으로도 성숙된 훌륭한 면을 보여 주었다.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거나,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똑같은 복음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실감한 이 날 밤의 모임은 올림픽이 한국 성도에게 주는 축복과 확신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우정의 밤에 참석한 선수들



'88 서울국제민속축제

'88 Seoul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

서울 국제 민속 축제에 참가하여 전국을 누빈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

서울 올림픽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한국 국제문화협회, 한국방송공사와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88 서울 국제 민속축제에 미국대표로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이 참가하였다. 전 세계 12개국에서 초청된 민속무용단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성화봉송에 따라 전국에서 공연을 가졌다.

9월 10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 무용단은 한국에 오기전에 이미 8월 12일부터 필리핀,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 4개국 공연을 마쳤다.

24명의 무용수와 6명의 악단, 3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중 단 한 명만 무용을 전공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공이 다른 순수한 아마추어 팀이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11일 서울 신당와드에서 가진 노변의 밤에서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주제로 훌륭한 말씀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폴란드, 세네갈, 터키와 함께 한 팀이 된 브리감 영 대학교 무용단은 9월 12일 부산 KBS홀을 가득 메운 5천 여명의 관중앞에서 화려한 의상과 풍부한 춤으로 미국 전통춤을 소개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어 9월 13일에는 대구로 옮겨 대구 시민 회관에서 역시 성공적인 공연을 가진 후, 15일에는 성화가 도착하는 의정부에서 3만 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화맞이 문화 축제에 참가하였다.

9월 16일에는 서울시 주최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린 올림픽 전야제에 참가하고, 드디어 9월 17일 개막식 당일에는 개막행사 공연에 참가, 이번 내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들은 각 지방공연시 그 지역에서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하여 지방 유지 및 사회 저명인사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선교활동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공연을 계획하고 단원을 이끈

렉스 배링톤 형제는 “이번 축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정치, 경제, 지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이해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성화가 봉송되는 지역과 올림픽 경기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미주 지역을 대표하여 내한한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이 아름다운 춤과 음악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교회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 크게 자랑스럽다고 하겠다.



브리감 영 대학교 무용 단원들

말일성도 자원 봉사자들

올림픽은 선수들과 관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경기와 진행이 순조롭게 되기 위하여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경기장 안팎, 선수촌, 호텔 등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 수 많은 자원 봉사자들 중에는 많은 말일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파악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남 와드의 이 영진 자매, 신길 와드의 최 민규 형제, 우드 형제, 개봉 와드의 엄 건용 형제, 강서 와드의 조 정순 자매, 미아 와드의 김 혜경 자매, 화곡 와드의 이 새인 자매 등이다.

이 중에서 귀환 선교사로서 다시 한국에 와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드 형제의 간증을 소개한다.

아낌없는 봉사

조 우드



나는 이번 서울 올림픽에 자원봉사요원으로 참가했던 대학생이다. 나는 작년 10월달에 자원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 1년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나는 기자촌에 있는 보도본부 등록센터에서 통역을 했다.

나는 아침 9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연속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루 15~18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못자고 기자촌에 있는 Apt에서 묵었다. 학교에 가는 시간과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은 한달이나 수업을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쁜것은 아니었다. 나는 매일매일 수백 명의 기자들과 대화를 한다. 세계의 유명한 신문사와 방송국을 운영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자들이 입국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내가 일하는 등록센터이다. 기자들은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센터에서 AD카드를 받아야 한다. 기자들은 여러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등록센터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사이야서 2장 17절의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손님을 대할 때에도 이 말을 생각했다.

한달 동안 20여개가 넘는 나라의 기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한국이

참으로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느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하고 또한 한국에서 거의 4년 동안 살았고 선교사업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잘 알기도 한다. 이렇듯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고 무척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내가 기자들을 도와 주면서 그들의 미소나 고마운 표정을 볼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달콤한 느낌이었다.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배운 것은 우리의 피부 색깔이 하얗거나 노랗거나 검었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배고픈 것을 잊을 수 있었고 학교 수업이나 하숙비 등, 여러 문제들이 모두 의미없는 것이 되었다. 또한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생각도 버려졌다. 그러한 모든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는 물론으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낌없는 봉사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자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그마한 실천이었음을 간증한다.*

도날드 조 우드 형제는 현재 서울대 국문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 소속이다.

정정합니다.

10월호 교회 및 지역 소식란 1페이지에 실린 간증의 필자를 서 수열 자매에서 서 순열 자매로 정정합니다.

